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겸 주간 지재운
편집장 문정완
외대신문사(☎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 510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3월 21일 (화요일)

직원노조 7일째 전면파업

직원인사위원회·단일호봉·임금인상등 요구

학교측의 무성의·미온적 태도로 협상지연

단일호봉제를 채택하여 임금 인상하라
임금현실화가 등록금인상 요인될수 없다

▲14일(화)교수회의실에서 노조원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다.

「직원인사위원회 구성」「단일호봉제」「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본교 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4일(월)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오늘로 7일째를 맞고있다.

지난 16일(목) 오후 4시 귀빈식당에서 있었던 파업이후 첫 단체교섭에서는 3월2일(목) 고발조치된 법적구속사항(남녀고용평등법, 퇴직금 법적급여)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노조측의 요구조항중 대학민주화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은 교수·직원·학생등 각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성유도를 해내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원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되었다. 한편, 이외의 노사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강영은 노동조합장은 『아직까지 학교측은 요구조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문제해결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측의 무성의한 답변에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적법한 방법동원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빨간조끼와 공동체의식

△ 대학사회만큼 이해와 요구가 가시적으로 표면화되는 곳은 찾기 힘들다. 대학에는 교수, 학생, 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불합리한 조건들을 개선해가려 한다. 이러한 교수, 학생, 직원 각계층의 요구들은 때로 수업거부, 파업, 점거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로인해 학교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적지 않게 존재해왔다. 이는 올바름을 찾고자하는 사람이 모인 대학속에서 모순을 해결하고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당한 행동이며 어느사회보다 먼저,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를 지켜보는 다른 대학성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하나의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지난14일 본교직원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인사 근무수칙의 불합리개선, 퇴직금제도와 단일호봉제실시등을 내걸고 지금 현재까지 일주일째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계단을 청소하던 아주머니, 항상 웃는 얼굴로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던 아저씨… 결코 낯설지 않은 주위의 사람들이 빨간띠와 빨간조끼로 통일하고 교내를 돌며 그들의 요구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의 잦은 학원민주화시위와 수업거부에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점거농성장을 가로막는 학교의 심부름꾼으로만 알고 있었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은 유감스럽게도 「고려」의 차원을 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직원노조의 투쟁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학교행정의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이를 실망케한다.

▲또 하나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은 대학을 구성하고있는 우리자신의 모습이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우리는 학교생활속에서 부딪치는 사소한 불편함이나 불이익 때문에 그러한 투쟁을 반목과 지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직원노조가 출발한지 1년이 넘어서도록 학생자치조직인 총학생회와 상호불신과 오해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파업과정중에서 직원·학생간의 구체적인 연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요인인 것이다.

▲언제나 강조하는 연대와 단결의 원칙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현사학재단이 안고있는 모순속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직원노조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정완〉

동문대 타자특강 실시

3월27일까지 접수

동양어문대 학생회는 오는 3월27일(월)부터 4월27일(목)까지 타자 자격증시험(4월예정)과 취업대비를 위한 타자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의 수강료는 1만원이며, 접수는 3월27일까지 동양어문대 학생회실과 어문학관 식당 앞에서 한다.

사범대학 교학과 교직이수신청자발표

사범대학 교학과는 8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서양어대 38명, 야간강좌 22명등 총60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89학년도 4월중 문교부에 보고 할 88학년도 신청자명단을 공고한 것으로 신청자중 명단에 누락 및 오기된 학생은 사범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용인 「C.C.C.」 음악선교단 초청공연

용인캠퍼스 「C.C.C.」 주최 「크로스 로드(Cross－Road)음악 선교단 초청공연」이 오늘(21일)오후4시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등록금 분할납부3월 25일까지접수

서울캠퍼스 경리과와 용인캠퍼스 서무과는 오는 3월25일(토)까지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접수한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3월28일(화), 29일(수)양일간 예치금 3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4월28일(금)까지 납부하면된다.

한편, 기간내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1학기성적은 취소되며 다음학기 등록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서총련결사대 민정당사 점거농성

지난 17일 본교생3명포함 23명전원 연행

본교생 3인을 포함한 서총연산하 「광주학살 5공비리 노정권퇴진을 위한 애국결사대」소속 23명은 지난 3월17일(금)오후 7시30분 민정당 중앙당사 9층을 점거하고 『2천여 광주시민의 피맺힌 한과 생존권쟁취의 몸부림을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광주학살 5공비리 전·노일당 처단하자」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놈들 몰아내자」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소방차와 백골단을 동원한 경찰에 의해 전원연행되었다.

이날 연행된 본교생은 나길수(서양·독어4), 윤동호(동양·터어키어3), 오인근군(동양·중국어3)등 3명으로 이들은 폭력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되었다.

「누리에」공개특강 21일부터23일까지

용인캠퍼스 사진반 「누리에」는 오늘(21일)부터 23일(목)까지 매일 오후 4시30분 「초보자를 위한 기본 사진강의」를 공개특강한다.

사진의 역사, 카메라의 종류와 구조, 촬영기법, 슬라이드 상영등의 내용으로 개최되는 이번 특강은 21일(화)과 22일(수)에는 교양학관 314호에서, 23일에는 어문학관 408호에서 각각 진행된다.

용인「애국자 결의대회」 열려

″중간평가를 노정권퇴진투쟁의 계기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구국왕산 애국자 결의대회」가 용인캠퍼스 단대 학생회 연합 주최로 지난 3월16일(목)오후1시30분 어문학관 앞 해방광장에서 열렸다.

1,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인문대 학생회장 김동일군(사학4)은 정부의 중간평가에 대해 『보수대연합의 구축과 5공비리, 광주학살등으로 실추되어가는 현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음모』라고 말한뒤 『애국민중세력은 4월중 계획된 중간평가를 노정권 퇴진 투쟁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김근래군(무역3)은 투쟁결의문을 통해『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정치·경제·군사적 이해를 위해 남·북한 분단고착화의 일환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의 저지투쟁은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2백여명의 학생들은 학교 진입로에서 「노정권 퇴진」 「팀스피리트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시위도중 정현진군(서문·영어2)이 머리에 직격탄을 맞아 10바늘을 꿰매는등 7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어 성남 인해대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동의 함성으로 총 진군하자

서울·용인 총학생회 출범식 거행

△지난 3월 15일(수)거행된 서울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 발대식 모습.

서울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와 용인캠퍼스 제10대 총학생회 발대식이 지난 3월15일(수), 14일(화) 서울·용인 양캠퍼스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15일 오후1시 본수대앞 해방광장에서 열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발대식은 제23대 총·부학생회장 정재원(동양·일어4), 김시선군(법·법학4)과 이강혁 부총장 및 각단대학생회장, 직원노조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풍물패의 길놀이, 발대식, 고사, 마당극 공연의 순으로 약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총학생회장 정군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역대 총학생회의 혁신과 단결을 계승하여 자주·민주·통일의 구현과 중흥외대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전체 외대 학우들과 함께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총학생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14일 오후2시 명수당옆 야외무대에서 용인캠퍼스 석일균 부총장, 정홍택 총동문회 부회장과 총·부학생회장 윤원철(사회·경제3), 김유산군(서문·독어3) 등 교수, 학생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10대 총학생회 출범식에서 총학생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왕산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학생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한뒤 제10대 총학의 사업에 대해 『학내 민주적 자치활동의 옹호·보장과 조국의 자주·민주화 실현을 기본목표로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제1차 정기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는 ▲4월중순, 외대 왕산설립 10주년및 개교35주년 기념체전 ▲5월하순, 춘계농촌활동 ▲6월중순, 이재용, 이시경 열사 정신 계승 실천주간등을 내용으로 하는 1학기 사업계획을 보고 하였다.

단대 신입생 환영회열려

서문대24일·동문대22일·사회대 오늘

서양어문대와 동양어문대, 사회과학대의 신입생환영회가 오늘(21일)부터 24(금)까지 치뤄짐에 따라 용인캠퍼스 각 단대 신입생환영회가 이번주 내에 모두 끝나게 된다.

총여학생회와 자연과학대는 지난 3월20일(월), 17일(금) 과별공연과 장기자랑등으로 신입생환영회를 마쳤으며, 학생회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동양어문대와 사회과학대 신입생환영회는 각과 문화행사, 신입생 장기자랑, 대동놀이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단대 신입생환영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양어문대:24일(금)오후1시 대강당 ▲동양어문대:22일(수)오후2시 대강당 ▲사회과학대:21일(화)오후4시 소운동장

사령

임

정기자

노회원 (동양·베트남어2)
서화교 (서문·이태리어2)
이명례 (서양·불어2)
이영희 (동양·인도어2)
정현덕 (정과·정외2)
차애리 (동문·태국어2)
최경옥 (동문·아프리카어2)
추인수 (서문·독어2)
허행진 (사범·한교2)
〈이상 9명 3월24일자〉

면

수습기자

김민수(동양·아랍어1 휴학)
김종운(서문·이태리어1휴학)
이영훈 (서양·노어2)
원에 의해 사임
〈이상 3명 3월10일자〉

▲노태우, 중간평가 무기한 연기발표
－컴퓨터 고장, 수리중
▲팀스피리트 훈련중 미공군 헬기 연쇄추락
－민심(民心)은천심(天心)
▲전투경찰 학내난입
－학내공사 지원출장(?)

외대학보의 자율적 운영을 요구한다

—예산편성권과 신문사 행정독립쟁취투쟁을 시작하며

자유와 정의·진리가 구현되어야하는 대학내에 비민주적 요소가 잔존해 있다는 것은 치욕이다. 특히 민족과 역사앞에 진실을 고해야하는 대학언론이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억압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은 어떠한가. 비민주적요소는 없는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편집자율권과 예산자율권이 신문을 제작하는 학생기자들에게 있는가. 이러한 생각속에서 자유언론과 정론직필을 사시로 하는 외대학보는 언론자유의 올바른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편집자율권, 예산자율권을 억압하는 모든 비민주적 요소을 척결할것임을 다짐한다. 현재 비합리적 신문사운영회칙, 예산결산의 음모적 진행, 신속한 신문사운영을 저해하는 학교행정체제등은 외대학보의 질적발전과 진정한 자유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우리 기자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나마 누차 이의 개선을 학교측에 요구해왔으나 매기시마다 학교측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을 지연, 무마시켜왔다.

학교측은 이제 외대학보의 발전을 위한 학생기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것이며 이를 묵과할시 학교측은 외대학보의 발전을 원치 않는 것이라 판단, 더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을것을 밝히는 바이다.

1. 지단 86년부터 신문사 운영회칙 개정안을 제시하여왔건만 학교측은 「연구해 보자」라는 답변으로만 일괄할뿐 왜 승인을 미루고 있는가

85년 대학신문 통제의 일환으로 문교부에서 작성·배포된 현재의 운영세칙은 오늘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으며, 이후 외대학보를 통제하는 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학교측은 개정학칙과 관련하여 지난88년 12월 작성된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더이상 승인을 미루지 말라.

2. 예산·결산을 왜 학생기자에게 공개하지 않는가

학보사의 제반운영과 모든실무를 학생기자들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가 신문사직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된다 함은 학생기자의 자율적 활동을 저해할 뿐이다. 불필요한 예산이 학생기자도 모르는 사이에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학생기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 학생기자는 오로지 외대학보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88년학민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언론사의 예산자율권을 즉각 시행하라.

3. 외대학보 운영에 있어서 신문사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그간 전반적인 신문사 행정의 결정에 있어서 신문전체를 책임져야할 학생기자들의 요구는 사장되고 신문사와 아무상관도 없는 일부 처장들의 결재까지 거쳐야 했다. 이는 신문제작주체의 독립이 전혀 보장되고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문사의 제반행정의 신문사의 주체인 학생기자와 주간교수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힌다.

4. 학교측은 학생기자들이 제시하는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더이상 지연하지 말라

2월28일자로 광고 계약이 끝난상태에서 더이상 새로운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지연하는 것은 학생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며 자율권 침해라 규정한다.

이상의 사안에 대하여 3월22일 오후 3시까지 학교측의 정확한 회답이 없었을시 외대학보 기자일동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통일염원45년3월21일
외대학보 기자일동

사설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시민의발」을 묶은것은 노조가 아닌 공권력

지하철노조가 쟁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나 과정등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3월16일 새벽 파업을 시작하며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을 51개중대 8천여명의 전경들이 폭력적으로 진압, 연행한 사건은 현정권의 반민중적 작태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86년 건대진압이후 최대의 공권력 동원이었던 이번 진압은 25분만에 노조원 2천4백43명을 무차별 연행, 구타하고 극렬분자로 매도하는 그들의 단련된 업무(?)를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권이 이같은 공권력을 공공연히 자행하도록 그 배경조성에 일조한 제도언론의 일사불란한 편향보도이다. 지하철 노조가 무임승차를 실시하던 때부터 「무임승차에 잃어버린 시민질서」라며 지하철 노조에게 동조하지 말 것을 주장했고, 15일의 총파업이 결정되자마자 시민의 입을 빌어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시민들의 동조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가 하면, 농성인들을 극렬폭도로 매도하길 서슴지 않고 있다.

지하철노조는 그동안 명실상부한 민주노조의 기치하에 평생직장 건설을 목표로 사용자의 권위주의와 억압에 대항해왔다. 그러한 지하철노조가 지난해 6월17일의 파업으로 직제개편등 합의사항을 약속받았으나 이의 불이행에 대해 다시금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에 만전을 기하기는 커녕 제도언론들의 편향보도와 공권력의 무력적 진압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요며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이 지하철 노조원들의 파업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은 민주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녕 시민의 발을 묶고있는 자들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노사분규가 있을 때만 기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공권력, 그리고 제도언론 바로 그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시민의 발을 그토록 걱정해준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일은 왜곡과 폭력탄압만이 아니라 합의사항 이행, 고건 서울시장의 확인서명, 그리고 구속자들의 전원석방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간 민주노조의 선봉으로 굳건히 투쟁해 온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언론이나 정부에서 「시민의발」이 무분별한 조합원들의 파업에 의해 묶인다고 주장하여도 민주시민들은 정부나 서울지하철공사의 매도와 탄압에 굴복, 작업장으로 향하는 노조원들을 원치 않는다. 또한 아우성을 치며 출근을 해야하고 심지어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노조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이번 지하철노사간의 싸움결과가 이후 타(他)노조들의 싸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한 정부, 사업주의 노조탄압이 제3, 제4의 폭압으로 재현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투쟁의 중간점검, 힘찬 전진을 위해

◇현 정세의 점검과 향후 노태우 재신임 국면에 대한 투쟁전망

이 경 민

〈정치 평론가〉

Ⅰ. 정세의 기본성격과 기간의투쟁

작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광주학살·5공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투쟁은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청와대 독재에 일정한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었고 이에 미·노태우 정권은 보다 주동적인 정국개편 구상을 모색해 왔다. 식민지 분단독재체제를 유지·안정화 하기 위한 미국-청와대의 정국재편 구상은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보수대연합의 구축을 통한 독재정권의 안정화이며 다른 하나는 북방교류를 통한 두개의 한국 정책이라 할수 있다.

> 민민운동 세력은 노정권 퇴진의 국민적 여론을 확보하고 보수야당의 동요성을 견인하여 공동투쟁기구 결성을 통한 민주 대연합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반면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전민련 결성을 계기로,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의 자주적 각성과 정치적 진출을 더욱 더 고양시키려 하는 한편 미·노태우 정권의 식민지 군정안정화, 분단영구화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첫째, 노동대중은 지난 해 이후 전개해 온 노동악법 개폐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임금인상과 민주노조쟁취 투쟁을 본격화 함으로써 정치역량을 정비해 왔으며 권력과 자본가의 노동탄압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의 전국적 단결을 공고히 해가고 있다.

둘째, 농민들은 지난 3월 1일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결성한 이래 미국의 경제침략규탄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예속정권의 반농민적 정책에 맞서 농축산물 제값받기, 수세거부, 토지반환, 고추전량수매 등을 내걸고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세째, 청년학생들은 학원민주화 투쟁과 함께 팀스피리트 훈련 반대, 광주학살·5공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투쟁을 전개하며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내적으로 조직적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민지 군정안정화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투쟁을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운동의 성장·발전은 미국-청와대 독재가 추진해온 식민지 파쇼체제의 재편안정화 기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군사독재의 기만적 개량의 본질을 스스로 폭로케 하였다. 노정권은 지난 해 12월28일 소위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를 신호탄으로 현대중공업·지하철노조의 생존권 투쟁에 폭력으로 답했으며 2월13일 여의도 농민집회 역시 폭력테러로 짓밟아 반민중적 본질을 드러내었고, 이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광주학살·5공비리 민중생존권 탄압 책임자 노태우·부시 규탄 국민투쟁기간」중에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여 정권의 취약성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Ⅱ. 투쟁의 중간점검

왜 투쟁의 평가가 필요한가? 미·노태우 독재의 식민지 파쇼체제 재편음모는 재신임국면의 도래와 함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광주학살·5공비리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일거에 해소하고 민족민주운동 탄압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식민지 군정안정화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미국-청와대의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은 지난 시기의 투쟁 성과와 한계를 엄밀히 타산한 기초 위에서 시급히 새로운 투쟁의 전망을 내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식민지 군정통치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총체성이 견지됨과 동시에 대중의 힘을 하나로 모을수 있는 중심고리에의 집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전까지 투쟁의일면성으로 인해 빚어진 편향이 극복되고, 미국-청와대 독재에 대한 다면적 공격이 이루어 졌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국민적 분노의 중심고리인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5공악폐 청산투쟁이 반노 반미 의식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투쟁의 집중성이 부족 하였다.

둘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총체적인 반미반노 전선의 확대 강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급·계층간, 부문간 대중적 연대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는 특히 노동자·농민·청년학생운동으로 대별되는 3대 민중운동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여 투쟁속에서의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군사독재와 자본가의 총력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치밀한 전술계획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물론 현재 민중운동 역량의 발전 수준이 계급계층내의 단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임을 인정한다해도 청년학생운동이 노동자·농민운동과 대중적 차원에서 긴밀히 결합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계급계층내의 단결에 못지 않게 계급계층간의 대중적 단결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세째, 3대 민중운동 역량강화를 근간으로 양심적 종교인, 진보적 지식인 등 사회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중간층 대중운동의 동력을 이끌어 내려는 다양한 전술구사가 부족했다. 87년 6월 항쟁, 88년 하반기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투쟁은 중간층 대중의 투쟁력이 민족민주운동에 있어 차지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이미 실증한 바 있다. 따라서 민중운동 진영은 중간층 대중의 제 상태와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므로써 투쟁의 범국민화를 이루어 내는데 앞장서야 했다. 매개의 정치폭로, 전술구사에 있어서도 중간층 대중이 3대 민중운동역량의 튼튼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가 필요하다.

중간평가는 독재체제 분쇄, 민민운동 획기적 전진의 계기
각 부문운동 연대로「전면적 반노투쟁」전개해야

네째, 투쟁전술의 단순성을 극복해야 한다. 대규모투쟁과 소규모투쟁의 배합, 폭력투쟁과 비폭력 투쟁의 배합 등 정세의 추이와 식민지 지배세력의 대응에 따른 전술구사에 있어서의 유연성 부족이 대중투쟁의 발전에 장애로 되어왔다. 예컨대 공권력의 집회·시위 원천봉쇄가 예견된 상황에서 정치적 명분때문에 폭력탄압에 대한 별다른 준비없이 대회를 무리하게 강행하여 적에게는 자신감을, 대중에게는 무력감을 주는 것보다는 유연한 전술변화가 더 유용할 때도 있다. 폭력탄압에 대한 사후 규탄도 필요하지만 그이전에 폭력탄압을 피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할수 있다는 대중적 자신감이 더욱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선전선동역량의 비전문성과 원시성의 문제이다. 보수적 제도언론이 기동성 있게 독재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음에 반해 민족민주선전역량은 아직도 그 고립분산성·원시성으로 인해 대중투쟁의 유력한 무기로 되고 있지 못하다.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교묘한 왜곡보도, 민족민주투쟁에 대한 축소·왜곡 등이 대중투쟁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원인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언론운동역량의 이에 대한 대응은 수공업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쟁과정 속에서의 선전선동 일꾼들의 의식적 노력의 강화와 함께 민중언론운동역량의 체계화를 통한 「계획으로서의 선전」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Ⅲ. 중간평가와 민족민주운동의 대응

다양한 정치적 계기를 매개로 (부시방한, 히로이또조문 등)전개되어온 2월 투쟁은 노정권의 중간평가 조기실시를 계기로 전환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중간평가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치뤄지든간에 그 성격상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보수대연합 구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식민지 파쇼체제를 재편하려는 현 시기 미국-청와대 독재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평가는 현상적으로 여·야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점진하는 민중역량의 확대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정면도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의 대응 또한 중간평가를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조기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민족민주운동은 당면한 재신임국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가?

첫째, 여·야간 대립의 쟁점이 되어 왔던 중간평가의 시기·방법·대상에 대한 형식적 요구를 앞세우기 보다 노정권의 반민주적 본질 폭로와 함께 보수야당과 독재권력의 타협을 비판하며 노정권 퇴진의 국민적 여론을 확보하고 보수야당의 동요성을 견인하여 민주대연합을 구축할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현 시기 민주세력의 공동투쟁기구 결성을 통한 대단합의 실현은 노정권 불신임·퇴진 투쟁을 위한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불신임 이후의 정국을 책임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국민적 신뢰장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범국민 투쟁기구는 중간평가 국민투표 과정에서의 협동은 물론 그 이후의 지속적 단합에 대한 전망을 갖는 조직이어야 하며 대국민 공동선언을 통해 독재정권의 허구적 안정논리를 폭로하고 재신임 부결 이후의 정치일정에 대한 안정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 시기 중간평가는 광주학살 5공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범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채 국민투표를 통해 광주·5공문제를 기만적으로 매듭지음으로써 5공화국을 부활시키려는 노정권의 음모임을 부각시키면서, 광주·5공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학살·비리공범 노태우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 및 특별검사제 도입, 광주 5적(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 위컴)처단의 요구 등이 있으며 학살·비리 공범과 타협하는 보수야당에 대한 폭로를 통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제해 내는 것이 야당 견인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5공비리 주범 처벌투쟁의 대중적 열기가 지난 해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없는 한 언제든 대중의 분노는 다시 폭발하기 마련이다.

세째,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민중운동탄압 분쇄투쟁등에 모든 민족민주세력이 힘을 합하므로써 반노태우 투쟁으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현 시기 민중생존권투쟁은 매년 마다의 연례적 투쟁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농민운동이 정치투쟁으로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사독재정권의 총력파괴 공작이 대립전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은 노태우 퇴진투쟁을 결의하기까지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독재권력과 자본가의' 공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범민주세력의 민중생존권 지원투쟁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투쟁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만일 민족민주운동이 중간평가 자체에만 함몰하여 민중생존권 지원투쟁을 방기할 경우 중간평가에서의 패배는 물론이거니와 변혁운동의 대중화에도 심각한 타격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7년 선거투쟁 패배의 주원인 중 하나가 선거혁명론의 환상에 빠져 7·8·9월 노동자 대투쟁과 결합하지 못한 오류에서 기인했던 경험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Ⅳ. 맺는 말

중간평가는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청와대독재의 군정안정화·분단영구화의 시험대이며, 민족민주운동의 획기적 전진이냐 후퇴이냐를 가름하는 전환적 계기이다. 지난 1~2월 투쟁의 중간점검에서 제기된 주체역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주대연합을 실현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간평가는 오히려 군정종식과 민족민주운동의 장성·강화로 발전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간평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단결의 기조위에서 모든 방면의 반미자주화·반독재민주화·조국통일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재신임의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진출을 이후에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노태우 신임!! 광주학살 재현.
서울민족민주운동

▲지난 3월19일 한양대 노천광장에서 열렸던 「노태우 정권 불신임 투쟁 선포대회」 모습

펜보다 강한 사진

▲「사진은 언어이다」

사진의 본질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은 표현매체중의 한가지로서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글이 갖고있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현실감을 더하고 진실의 뒷받침을 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진기자가 사건의 현장마다 경쾌한 셔터소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빰을 타고 흘러내리는 뇌수(腦髓), 적을 향해 돌진하려다 머리에 총을 맞고 멈춰선 병사의 모습」

18년 동안 다섯군데의 전쟁터를 돌아다닌 종군사진기자 로버트 카파가 찍은 「병사의 죽음」은 전쟁의 아픔을 수많은 기사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보도사진의 기능은 크게 역사적 진술로서의 사진과 사회적 진술로서의 사진으로 나뉜다.

이중 두번째 사회적 진술로서의 사진은 대중성이 가장 강하고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용될경우 정치적, 군사적인 선전에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전달할 주제를 선택하는 사진기자의 주관적 눈으로, 즉「인간의 눈」에 의해 찍히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예가 과거 모일간지가 1면에 실은「불타는 할머니」의 사진이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붙은 할머니의 모습은「선별된 주제」가 가장 악용된 것중의 하나라고하겠다.

사진기자의 특종의식과, 맹목적 객관성으로 권력에 유착하는 신문사의 요구가 결합돼 독자대중의 눈을 덮어버리는 것이 한국 보도사진의 역할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사진을 담는 대다수 언론매체가 갖고있는 문제점으로 본질을 은폐하고 현상만을 강조하거나, 주제마저 선별해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는 제도언론의 특성을 가장 잘보여준다.

▲「나의 사진기는 나의 펜보다 강하다」는 말은 사진매체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켜준다. 그리고 이말은, 사진의 왜곡이 이사회의 언론을 멍들게하고 사회마저 부패시키는데 일조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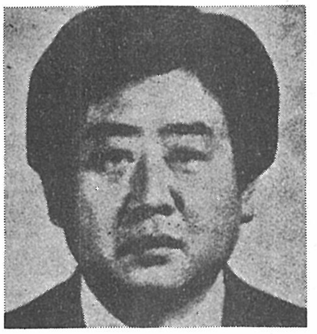
「아픔의 공유자」로 자신과 현실에 대한 능동적 작용을 통해, 결국 현실을 변혁시키는「카메라 아이(Camera eye)」를 가질때 진정 사진기는 펜보다 강한 무기가 된다.

사진을 통한「아픔의 공유」는 현장마다 존재하는 명청한 객관성이 아닌, 사진기자가 적극적으로 진실에 접근해나가는 순간「찰칵」하고 우리의 왜곡된 역사앞에 던져질 것이다. 〈한〉

고문경찰 이근안 현상수배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 을 긴급 현상수배합니다.
이 자는 72 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여 왔고 79 년이후 대공분실 등에서
시국사건을 전담하여 소위 "관절뽑기"를 주특기로 하여 물고문, 전기고문등
능숙한 고문기술로 남민전사건, 반제동맹당사건, 김근태씨사건 등을 조작하고
수많은 민주인사의 심신을 파괴한 자입니다.
야만적 고문경찰을 처벌하여 우리사회에서 반인간적 고문행위를 퇴치합시다.

1. 경찰은 이근안의 도피행각에 대한 방조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검거. 구속하여 고문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온국민에게 발표하라!
1.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경찰을 지휘하여 고문수사를 자행해온 치안당국자를 색출 처벌하라!
1. 고문폭압기구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을 해체하라!



◀사진은 젊었을 때 사진으로 실물은 늙고 몹시 험악한 얼굴임.

● **인상착의** : 일명 반달곰. 신장 172㎝가량.
배가 볼록 나왔으며 90㎏ 이상의 거구임.
손이 솥뚜껑만하고 눈이 째지고 흰머리가 있음. 얼굴이 험악함.

● **현 상 금** : 1백만원
● **연 락 처** : 서울 02—764—168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 051—464—6460
(부산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광주 062—222—0047
(민주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조국의 새날을 연다

〈4〉

연방국가 형태와 통일정부의 위상

-「활동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연방정부를 제기하며

통일정부 완결된 통일국가로의「합작」을 수행

통일된 국가적「지도」를 통해 지역자치 정부를 이끌어나가

글싣는 차례

1. 통일논의의 올바른 관점정립을 위하여
2. 연방제통일의 불가피성
3. 통일의 선결조건과 각급교류의 문제
4. 연방국가형태와 통일정부의 위상
5. 연방제통일의 이행방도
6. 통일주체역량 결성을 위한 일고찰
7.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의 현실적 접근

이 한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사진은 지난88년 8월15일에 연대에서 있었던 남북 학생회담 출정식 모습

(1) 머리말

연방제의 요체는 북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금철 부위원장의 다음의 언급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문제를 민족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의 문제는 계급적인 문제나 어떤 제도를 어떤 제도로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은 남북이 쌍방 동수로 국회를 구성, 연방정부를 세우고 남북 현 정부는 각각의 지역자치정부로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점인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은 연방정부에 주고 지역자치적인 문제는 지역정부에 주자는 방안이다. 즉 국방권과 외교권은 연방정부에 주면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제기구 등에도 단일국가로 가입하자는 이야기다. 이 경우 쌍방의 견해나 이익이 대치될때는 국제기구 표결에서 기권하도록 하면 된다. 또 국방문제는 쌍방의 군사력을 모두 삭감한 20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정부에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쌍방이 싸울 조건이 없게 되는 셈이다. 연방정부의 수반문제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남북이 교대로 맡도록 하면된다. 연방정부의 수반은 큰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쪽에 편향된 정책이나 법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인용해 놓고 보니 실상 연방제의 핵심적 내용은 거의 다 요약·정리된 듯 하다. 그러나 연방제의 「총체적 의미」는 좀 더 고찰해야만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 내용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방제적 통일방안이 현실가능한 통일방안으로 합의를 형성해가고 있는 현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연방제를 고찰해 보자.

(2)연방제란 무엇인가

연방제(Federation)는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다르다. 먼저 「국가연합」은 다수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결합되고 공동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국가형태이다.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각자의 국제적 인격을 유지하나 그 대외적 기능의 일부를 국가연합에 이양하고 있으므로 연합에 속하는 한 완전한 주권국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연합은 「단일국가성」을 가지지 않고, 구성체간의 「상호협의체성」이 특징이다.

비정치분야 교류 우선론·선평화후통일론 등은 분단 체제를 영구화 시키려는 현상유지적 반통일 음모이다.

연방제는 한 국가 내에서 권력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배분할때 채택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정부하에 영구히 결합하고, 중앙정부만이 구성국의 전영역내에서 최고의 주권과 지위를 보유유지하는 국가형태이다. 연방은 국내법인 헌법(복합문서)에 의해서 형성되고 중앙적인 연방정부만이 국제적 인격을 가진다. 연방제는 정치적 제도의 통합을 경제·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요소에 선행시키는 통합형태이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관계가 일반적으로 「대등성의 원칙」에 서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방정부(지역자치정부)가 주권(Sovereingty)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연방국가를 만들때, 이 연방에 참여하는 지역단위들은 모든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리고 그 주권들을 취합하여 새로운 연방정부 즉 연방국가의 중앙정부(통일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방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독점한다.

그런데 지역자치정부가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정부가 주권을 독점한다고 하여 양자의 관계는 완전한 상하관계의 지배·예속관계는 아니다. 양자는 대등성의 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영역분담의 관계이다. 실제로 연방제는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정부는 제한된 권한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꾸로 연방정부가 큰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제한된 권한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양자 사이의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란 대단히 어렵다. 양자 사이의 위상과 권한에 관한 것은 각국마다 독자적 경험, 역사 등의 조건에 따른 「합의된 원칙」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트래거(Trager)의 다음 언급은 연방제의 어려움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연방주의(제)는 단방제적인 것도 아니고 분리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아리스토텔레스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양극적 입장 사이의 중용이다』(이상에 관해서는 김병오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를 참조)

통합을 목적으로하는 한편 국가연합, 연방제와는 달리 현상유지를 근본으로 하는 기능주의론, 평화공존론, 교류협력론이 있다.

먼저 기능주의론을 보면, 이 이론의 기본틀을 제시한 미트러니(Mitrany)의 「전제」를 통해 그 내용및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전제」는 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기능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통의 이익이 두 사회에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통합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 ②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의 경험이 축적, 확산되어 다른 차원의 협조 관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른바 분지이론」(分枝理論, Ranification Theory)에 입각한 것이다. 즉 「퍼즐게임」이나 「벽돌쌓기」식으로 기능적인 부분의 상호관계가 통합을 촉진시켜 결국 정치적 통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제 ①과 분지이론의 전제 ②는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으로서 결국 두주권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반통합방안이라 하겠다. 이 이론은 유럽공동체(EC)를 모델로 해서 보수적 국제정치학의 「통합이론」을 차용한 것으로써 ① 적용대상의 상이성 ②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의 제한성 ③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 즉 「비정치적 부문」과 「정치적 부문」의 질적 차별성을 무시하는 차원균등화의 양화논리 ④ 따라서 당연히 지니게 되는 체제유지적 반(反)통일성(보수반동성)으로 설명 될수 있다.

요컨대 기능주의론은 계급지배를 항구화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시장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적용되는 것은 곧 분단체제의 합법화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론은 「두개의 한국정책」(Two Koreas Policy)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공존론이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남북협상에 착수하기 보다 이른바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평화공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선평화, 후통일」의 미려한 화명(華名)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대내적 계급투쟁의 절멸, 민중적 통일운동의 파쇄를 전제로 하는 「선(정권)안보, 후통일」, 보다 정확히는 분단체제의 합법적 승인을 통한 동맹적 공존 내지 「중립적 공존」을 추구하는 반통일이론이다. 이 이론의 정책적 표현은 교차승인,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등이다.

교류협력론이란 「인적 교류→물적 교류→정치적 교류」의 3단계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평화공존론과 더불어 명백한 함정이 있다. 즉 그 자체가 두 체제의 통합, 즉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중간형태」로 인정된 상태에서 통일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가 통일방안으로 된다면 이는 「평화적 현상유지」를 의미하게 된다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윗글은 김병오 앞의 책과 이해영「조국통일의 역사적 전개과정」참조)

(3) 북한 연방제의 역사

북한이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최초로 제안한 것은 1960년 8월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식에서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측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의 실시는 비록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연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지도는 못 하더라도 이 연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 민족에 이로운 경제·문화적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호상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재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60년 8월의 연방제안은 그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8차회의에서 좀더 구체화된다. 좀 더 「구체화」된 점은 다음 사항이다. 『최고민족위원회는 양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쌍방 대표들은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문제 해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정부가 다 같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서 최고민족위원회는 전 조선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제는 통일적인 연합정부가 아니므로 국가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하게 된다.

60년대 연방제의 특징은 ① 연방제가 통일의 최선책인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준비하는 「과도적 대책」으로 규정됨으로써 단계적 접근방식(Phased Approach)을 취하고 있다는 것, ② 남북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여 연방정부격인 최고민족위원회의 역할을 「경제·문화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기저논리로는 긴장완화와 북한 경제건설의 현실적 필요성이 깔려 있으므로해서 다분히 「기능적인 연방제」라 할수 있다는것, ③ 따라서 당연히 연방제가 자기내용으로 필요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와 지역자치정부간의 위상정리(주권, 권한 등)가 전혀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한 「최고민족위원회」의 성격이 전적으로 정부인지 의회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모호하다(즉 정부와 의회간의 위상 정립)는 것, ④ 이때의 연방제는 연방제(Federation)라기 보다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가깝다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의 연방제는 70년대 들어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최고 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자는 것이다』(72년)

이제 「최고민족위원회」가 「최고민족회의」로 대치되고, 그 권한은 「정치·경제·군사·문화적 문제」들로 확대 되었다.

1973년에 들어 북한은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고려연방공화국」안을 제안한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한 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가 된다고 인정한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의 국호는 우리나라의 판도위에 존재했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려연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북과 남 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73년에 들어 제시된 연방제가 보이는 주요한 특징은 우선 연방의 범위가 단일국호 하의 남북연방제에 의한 단일회원국으로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외교적 영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국가연합보다는 연방제(Federation)의 본래적 의미에 접근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연방제는 「각계각층의 망라하는 통일적인 연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하는,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혹은 「최고민족회의」의 조직을 통해 실시하자는 것이었던 것에 반하여 73년의 그것은 74년 8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에서 구체화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인민대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민족적범위」에서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방의 조직적 토대가 「상층교섭」에서 「하층인민대중」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전체 민족구성원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는 외교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북한은 74년 조국전선 중앙위에서 대민족회의의 참가범위를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을 대표하는 남북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 및 해외교포단체와 교포대표』로 규정하고 있다.

70년대 북한의 연방제는 상기한 바의 중요한 변화를 겪긴 하지만 60년대 연방제의 「한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즉 앞서 4가지로 정리한 60년대 연방제의 특징 중 ① 의 한계는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합리적 방도로 설정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④ 의 한계는 연방제(Federation)에 가까운 형태로 설정되어 약간 해소된다. 그리고 ② 의 경우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③ 의 한계는 지속됨으로해서 여전히 기능적인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60년대에서 70년대에로 연방제의 발전 혹은 변화는 연방제의 본래적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하 고연제)」(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fo Koryo)방안은 1980년 10월에 제안 되는바, 이런 연방제 통일방안의 완결편이라 할 정도로 체계적이다.

먼저 내용의 대강을 보자.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을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 합니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연방제가 「최고 민족위원회(회의)」, 「대민족회의」만을 상정하고 있음에 반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것의 상임기구로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제는 의회제를 갖고, 의회제는 대체로 양원제로 된다. 즉 연방국가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대단히 「시험적인」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은 의회 혹은 대의제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들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대의제와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논의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할 경우, 이 논의는 필자의 이해, 혹은 「바람직한 연방제」구성이라 생각하면 무방할 것 같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대의제와 의회제를 구분한다. 마르크스의 다음 언급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꼬뮌은 의회기구가 아니라 활동하는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꼬뮌이라는 프랑스적 현상에 매몰·한정해서는 안된다. 「꼬뮌」이라고 한 것은 마르크스가 당시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일뿐이다.

레닌은 이와관련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수년마다 매번 지배계급 중의 어떤 의원을 뽑을지 한번씩 결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통해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헌군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적 공화정에 있어서도 부르조아 의회제의 진정한 본질이다 …의회제를 벗어나는 길은 물론 대의제 및 선거원칙의 폐지에서가 아니라 그저 「잡담하는 상점들」로 부터 활동하는 기구로 대의제를 전환시키는 데에서 발견될 것이다 …의회 그 자체는 「범상한 민중」을 우롱할 특수목적을 위해 잡담하라고 양보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방제는 의회를 갖는다. 이때 「의회」의 본래적 의미는 「활동하는 기구」로써 「의회제의 의회」가 아니라 「대의제의 의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언급대로의 「활동하는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경우 최고민족연방회의가 지니는 온전한 본질을 의미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연방제가 남과 북의 서로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용인하는 기초 위에서 실시된다도 해도 또 다시 계급지배를 은폐하는 연방제일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고려민주연방제는 3가지 「선결조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3가지 선결조건이란 ㉠남조선에서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민주화를 실현할 것,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 것, ㉢미국의 「두개 조선」책동 저지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의 폐절 등을 일컫는 것이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즉 연방정부로서의 지위를 갖는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단순히 정부(Government)로서만의 지위·기능을 갖는게 아니라 특별히 다른 대의기구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대의기구의 조직 「질」도 함께 갖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잡담하는 상점」이지 않고, 또한 「정치적 매춘행위」에 종사하는 기구이지 않기 위해서는 「활동하는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인 것이다. 따라서 고연제의 언급 즉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는 정부대표가 아니라 74년 조국전선 중앙위가 규정한 대로의 대다수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그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점은 「선결조건」의 언급에서도 보이지만 「10대 시정방침」에 서도 확인된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연방정부가 분단체제를 교묘히 승인하는 「기생적 파생물」이지 않기 위해서는 연방제내에서도 국가적 통일의 조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제는 프루동의 연방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프루동의 연방주의는 「개량적 정체」, 「미신적 믿음」혹은 「현학적 절망」일 뿐이다. 연방제는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를 일관성있게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당연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바, 그것은 뚜렷하게 책임지는 대행인들에 의하여 수행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적 통일의 조직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없는 연방제는 반동적 허구일 뿐이다.

다음으로 연방정부와 지역자치정부간의 위상정리를 보자.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종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와 지역자치 정부의 위상은 한 국가의 독자적 경험과 역사에의해「합의된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연방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담당한다. 그리고 주권은 오로지 연방정부만이 보유유지하고 행사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책임·권한은 60·70년대의 정치·경제·군사·문화·외교 등 전분야에 걸친 것이 아니라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①정치·조국방위·대외문제등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 ②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 ③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가지 특별히 언급할 것은 「합작」이다. 1945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되어온 합작은 약간의 보충설명을 필요로 한다.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 등은 하나의 정치적 합작형태이다. 그러나 정치적 합작의 높은 형태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를 열고 통일도상에 나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토의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합작』을 고연제 이전에는 통일이전의 과도적 대책인 연방제를 획득하기 위한 「통일전선」적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연방제가 합작의 한 형태였지만, 고연제에서는 연방제가 곧 통일이기 때문에 합작의 한 형태로서의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를 굳건히 하고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남과 북 지역자치정부간의 「공고한 결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

연방정부의 국가적 통일성의 조직화, 연방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내용은 통일국가의 「정치강령」인 10대시정방침으로 구체화하여 적시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수 있는 고연제는 「Federation」이라고 하는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영어표현이 「Confederal」로되어있는 것은 대외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추측된다.

지역자치정부는 연방제의 일반적인 원칙인 대등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그 정책은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 내에서」이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지역자치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를 받는다. 이것은 통일유지의 기본요건이 되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제안은 이전의 연방제안이 여전히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대책」의 성격을 가졌던 것에 비해 자기완결적이고 명실상부한 분단국가의 지향태로서, 즉 「1국가 1민족 2체제」로서 통일국가의 형식과 내용을 논리적으로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통일문제의 핵심인 주권문제에 있어 2개의 「지역정부」를 지역자치정부로 위상설정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진정한 대표성과 공식성, 그리고 합법성을 갖춘 유일한 주권체로서 연방정부, 즉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본래적 의미에 충실한 연방제통일방안이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5)결론에 대신하여

통일된 연방국가의 국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과 북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평화통일의 3대원칙을 구현한 것이며 특히 자주의 원칙은 통일국가에서도 철저히 견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고연제는 수미일관한 논리적 체계를 갖춘 통일방안이다. 그것은 기능주의, 평화공존론, 교류협력론을 근간으로 하는 남한지배권력의 반(反) 통일방안에 철저히 대비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연제는 변혁의 대의에 복무하면서도 현실적합적인 통일방안이다.

지면관계상 남한의 통일방안을 연방제와 관련지어 논의하지 못했지만 실재로 남한 지배권력의 통일방안은 별 내용이 없으며 그 본질은 반통일방안, 계급지배의 정치적 도구라는 것이다. 차후 상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공권력에 유린당하는 여성인권

공권력의 성폭행에 대한 법적제제 근간마련

반여성 윤리관타파, 권리획득위한 견제 필요

이 미 숙
〈태국어과 88년 졸업〉

Ⅰ. 글을 시작하며

유교적 관습이 아직도 뿌리깊이 박혀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현하 법적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가족법이나 상속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등은 남존여비사상에 근간을 둔채 온존되어오는 여성에 대한 법적 제한을 깨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제도로서 규정하고자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올해에도 각 여성단체에서는 위의 법안들을 개정하게 하기 위한 대정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 팽배한 여성차별적 태도들은 남녀평등의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여성을 대상화, 종속화하는 풍조의 일신, 다시 말해 여성차별적 사상의 개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횡행하는 인신매매, 퇴폐윤락업소의 성행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게다가 이들의 성행을 단속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자행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파행성이 여성들에 대한 비인권적 태도를 온존, 강화시킴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중심으로 이를 방조, 유린하는 공권력의 작태와 이를 올바르게 견인해내는 약간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 이중폭력당하는 여성들

지난 87년 공장활동을 하다 연행된 권인숙양의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여성의 순결한 성을 도구로 고문하는 공권력의 인권유린행위를 여지없이 드러내 주었다. 이후 권인숙양의 용기있는 투쟁과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고문경관문귀동이 구속되었으나 경찰은 사건의 은폐, 축소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공권력의 성폭행은 이후로도 각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왔다.

그 예로서 지난해 5월 낙도의 한 여성이 파견나온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고흥군 포두면 낙도 첨도 주민인 이 여인은 임신 7개월째였던 87년 8월 순경 김봉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88년 5월『수치와 분함을 호소할 데가 없다』며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그이후 남편 전용순씨는 관할 경찰서와 순천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와 고소장을 냈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하에 번번히 고소가 기각되었다. 결국 전용순씨는 현때까지도「국민께 드리는 호소문」등을 만들어 배포하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또하나의 예는 지난해 12월5일 밤 10시50분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 대현1동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2명이 대림다방 여종업원 강정순(29)씨를 윤간한 사건이다. 윤간을 한 백승근 순경(28)과 김 정부 차석(45)은 강씨가 가족과 함께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도리어 사기죄,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잡아넣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진행과정이 피해자의「이중피해」를 낳게 된다. 우선은 경찰로부터의 성폭행이요, 두번째는 이에 대한 호소와 진정이「벽에 계란부딪기」식으로 전혀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협박, 공갈까지 당한다는 데에 있다.

더군다나 최근 백주대낮에 시장보러 가던 여인을 납치 매매하고,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여 여성의 성이 계속 유린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사회적 성폭력을 단속하고 근절하는데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경찰이 공공연히 성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인신매매현장을 목격 범인을 검거하고도 뇌물을 받은 뒤 풀어 주는가 하면, 건전한 문화조성에 앞장 서야 할 경관들이 퇴폐·윤락업소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여성의 성은 여성을 대상화·종속화하고자 하는 사회풍토로부터, 또 이를 근절해야 할 공권력으로부터라는 이중의 폭력으로 여지없이 유린되어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인신매매, 퇴폐·윤락업소의 번창에 대해 노태우는『엄중 단속하라』는 의례적 지시만 내리고 있다.

여성의 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했을 시에는 가해자들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장 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자행하는 현실속에서 인신매매나 성폭행, 윤락업이 성행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경찰의 부도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현 정권의 반민중성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공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들 즉, 사회로부터 성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전체 여성들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몇가지 과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선적 과제는 사회의 성에 대한 사상개조이다. 여성의 성을 쾌락의 대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풍토도 문제려니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를 숨기려는 여성들의 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숱한 여대생들이 경찰로부터 성고문을 당하고도 사회의 윤리적 구조때문에 고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를 밝히고자 용감히 나섰던 권인숙양이 끝내는 문귀동을 구속시키게까지 하였던 점에서 주목되는 일이다. 여성들이 입는 성폭행은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전체에게 가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선각적 인식속에서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몇가지 안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법적 재재근간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볼수 있겠다.「법개정 특별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개정등이 실현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권력이 성폭행, 인신매매에 대한 근절 기능을 전혀 수행해내고 있지 못함에 따라「매춘및 인신매매 특별 위원회」를 마련,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실제로「여성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한 각 여성운동단체에서 89년 특별사업으로 설정, 연대투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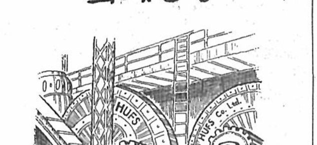
둘째로는 여성운동의 전체적 차원에서 정권의 반여성적 작태에 대항하는 사회의 정치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 근절이 그것의 뿌리를 뽑기 위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반노 민주역량 결집에 적극 동참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시평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여성운동의 범주속에 묶어내고, 보다 높은 선전력을 통해 문제를 확산하므로써, 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남녀불평등의 기원에서부터 체제에 복종해야 했던 여성들이 작금의 여성굴종적 상황을 뚫고 당당한 주체로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내적 혁명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며 이중의 성폭력을 자행하는 공권력의 반여성적 윤리관을 타파하고 제권리획득을 위한 적극적 견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범람하는 여성의 상품화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외대만평



외대 행정 stop!

동지같은 여성찾기

독자컬럼

이 장 우
〈서양·영어 3〉

빨간입술, 미니스커트보다 지성과 진정한 남녀동등에 과감히 도전해야

요즈음은 세상이 개방화되고, 남녀공학도 많이 생겼다고는 하여도 남녀부동석으로 6여년을 보낸 우리들 남성, 여성학우들에게 대학에서의 만남은 상호간 지녀왔던 막연한 호기심의 파기와 더불어 새로운 관심을 불어넣어준다. 한창 신체적, 정신적 변화기에 너무 멀어져있던 탓일까. 머리속에서 조형해놓은 이성상들이 실제로 마주 대하는 과정속에서 재스케치 되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재미있다.

보편적으로 볼때 남학생들이 여성에 대해 갖게 되는 가치관은 아주 어렸을적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주입에서 비롯된다.『여자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또『남자는 사내다워야 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던 국민학교시절 여학생들을 놀리던 어구로『치킨 꼬꼬댁, 하우스 폭삭』이 있었다. 학급회의 시간에 자기주장이 강한 내 짝을 괴롭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치킨 꼬꼬댁, 하우스 폭삭』이었고 내 짝은 그말만 들으면『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라면서 펄펄 뛰곤 했었다.

하여튼 이러한 생각은 분별능력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져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따로 놀게(?)하는 문교부의 비인권적 처사에 의해 여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분리선만을 그어 놓는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이란 TV를 통해 보는 여배우들처럼 예쁘고, 길거리 영화광고에 나오는 야한 장면들처럼 성(性)의 대상이고, 밤늦게 만취해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묵묵히 시중드는 충실한 내조자로서의 어머니이고, 무거운 짐을 운반할때 힘이 없어서 못 나르는 여동생, 그 이상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 간혹 만나게 되는 여성상 파괴(?) 여학생들에게서 받는 충격은 또하나의 여성상을 만들어 놓는다.

「남성우월」이 암묵적, 혹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남학생들에게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던지는 여학생, 궂고 힘든 과(科) 일도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일하는 여학생, 통일광장에서 스크럼을 짜고『노태우 타도하자』,『절러~ 총』을 외치는 과격(?) 여학생, 가두에서 통일을 외치다 머리채를 부여잡혀 끌려가면서도 당당하던 여학생 등.

별로 예쁘지도 않고, 별로 순종적이지도 않고, 별로 늘씬하지도 않은데 참마음이 가는 것은 왜일까?

솔직이 말해서 나는「여성해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여성해방」이란 단어에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웬지 믿음이 가고, 동지같은 느낌을 받는 여학생들이 간혹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남성우월」이라는 단어를 간직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까지 한다.

반면 극단적인 예로 얼마전 아침식사중「생방송, 전국은 지금」에서 올봄 여성화장법으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유행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 왔을 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빨간입술」들은 여학생에 대한 빨간 입술 외(外)에로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린다. 너무 예뻐서일지도 모르지만….

『군(君)은 왜 수업에 늦었나?』라는 질문에『늦잠을 자서요』라고 대답하는 여학생의 분바른 얼굴이 그렇게 미워보일 수 없었다는 한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캠퍼스에서 나타나는 여학생들의 유행감각은「개성을 말살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풋풋하고 동지같은 여학우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를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여학우들의 품귀현상을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인신매매 사건만해도 그렇다. 물론 잡아가는 사람들은 못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일단의 책임이 여성들에게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늘 수동적이고, 늘 상품화되기를 바라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등 해결해야할 여성문제의 주체가 누구여야 할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전 여성의 문제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지조차 때로는 궁금하다.

여하튼 이제는 캠퍼스에서 빨간입술, 미니 스커트보다 지성과 진정한 남녀동등에 과감히 도전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들의「남성우월」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었으면 한다.

기자의 눈

군·경의 양심선언

3월18일(토) 오후3시 파고다공원에서는 백기완씨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군민주화촉구 및 명예선언 장교 환영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지난 1월15일 명예선언을 발표한 R.O.T.C.출신 이동균대위와 김종대중위및 3명의 장교들에 대해 공권력의 계속되어지는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불명예로 군을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16일밤 정체불명의 치한들로부터 테러를 당해 대회에 참석지 못한 김종대 전(前)중위는『젊음을 조국에 기꺼이 바칠 각오이며 군대를 후손과 역사에 부끄럽지않게 바로 서게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외의 비리를 뜨거운 양심으로 민족에게 밝히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권은 군부내 장교들의 이와같은 움직임에는 아랑곳없이 양심에 따라 명예선언을 하고 군의부당한 정치간섭금지를 촉구한 장교들을 구속하는 등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왜곡된 군사문화를 척결하자는 컬럼을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을 일으키는등 민중의 민주화 의지가 고조될때마다 군인, 경찰들을 동원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정권의 최후 아지트인 군내부에서조차 외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애국군인들이 양심선언을 알린이후 전경들도 양심선언에 적극 참여해 군·경의 민주화의지를 느끼게 했으며 1월31일 양심선언을 한 조규봉 이경은 현역전경들도『외세와 군부집권의 방패이기를 거부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애국전경들은 불법적 시위진압동원에 염증을 느껴 전·의경의 본질과 비리를 밝히며 다른 전경들도 동참해줄 것을 주장 한 바있다.

군대의 민주화는 양심을 가진 몇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화의 널기로 전체의 의식이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설수 있는날 군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민족으로 광주학살과 같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뼈저린 상처를 남기게한 군은 단지 상부의 몇몇에 의해 군전체가 과오를 저지른 것을 상기하고 하루빨리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맹종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인들에게 정치상황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편향적 정신교육의 행위도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차애리 기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즉각 수용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3월 14일 오전9시를 기하여 단체행동중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는 우리 직원노동조합이 1988년부터 노사상호간에 단체교섭 및 실무접촉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화합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현 대학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직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과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一.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객관적 인사기준 즉각 재정하라.

외대 35년의 역사를 통한 직원의 인사관리는 무원칙한 정실 인사운영으로 객관성이 배제되어 왔으며 직원인사규정도 재정되어있지 않은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이를 위한 객관적인 인사기준과표를 작성하여 3월1일 기준 인사발령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一. 유니언·샵 제도를 즉각 인정하라.

1987년 11월 단체교섭안 제출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시행령의 불비로 미루어 오던 사항으로 1988년 4월1일 이후 노동조합법 제4장 제39조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노동쟁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본 직원노동조합은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3분의2이상 조합가입으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한 직장내에서의 각종 분파와 비조합원, 조합원이라는 현상은 외대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一. 처우개선 및 사학재정운영 지침의 각종수당을 보장하라.

인사의 변혁과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직급, 직책간 격차조정 및 호봉설정 단일호봉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분석에 따르면 기본급 개산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69%, 표준생계비에서는 34%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각대학학규치에서도 연봉계산방식에 의하면 사무직인 경우 평균 19.9%청소원 여직원인 경우 46.63%, 용원직은 22.49%로 격차를 보이는 바 이러한 격차를 해소시키면서, 금년도 물가상승율 7%및 문교부 사학재정 운영지침에 의한 각종 수당을 89학년도 부터 반드시 지급 되어야 한다.

一. 대학민주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대학은 구성원간의 이해 증진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객관적 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대학정책이 결정되어야하며 이해상충의 과정을 사전 해소 시키고, 각 구성원의 민의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렴할수 있어야 하며 전대학인은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一.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은 재수정 보완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되어져야 한다. 다만, 기획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활동을 통한 객관적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것이며, 구성원을 위한 경영합리화계획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무시못한 전대 금번 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장·단기 발전계획은 예산의 절감측면만을 강조하고있는 바 이는 즉각적으로 재수정, 보완, 검토 되어야한다.

一. 기타 노사관련 사항의 시급한 해결 및 성실한 이행.

대학은 어느 기관보다 신의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의 전문교육활동에 전력하는 말 그대로 진리의 전당일진 데 대학사회에 왜 파업이 발생되고 단체협약 위약사례가 발생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로 전락 되어야 하는가?

더구나 신성한 인간회복운동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사례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태의연하고 보수성의 늪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대학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주장이나 요구는 갑작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노동조합이 설립시 부터 주장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요구라는 표현은 잘못 되었음을 재삼 강조드리며, 그동안의 단체행동 과정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지적해주실 것과 이 기회를 빌어 학내 전 구성원이신 교수, 학생 여러분들께 교수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사과드리며 또한편으로는 대학측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노사현안문제에 관한 우리의 정당하고 객관적인 요구가 수용되어 노사평화는 물론 학원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학교측은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직원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차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학교측에 있음을 재삼 천명하는 바입니다.

1989년 3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장 강 영 은

새로운 우리철학 정립을 위하여

강연초록

민족학교 제2기 철학교실중에서
이 준 모 (한신대교수)

인간은 개별적 사물현상과 세계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파악하여, 사람과 세계사이의 관계에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른 세계관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철학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그러나 현시기의 남한철학은 2차세계대전 직후 세계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수법 변화와 함께 그 성격이 규정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본질적 특성에는 변함없이 식민지 민중에 대한 새로운 정치, 경제, 사상, 문화적 예속으로 발전하여 나서게 되었다. 남한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그들의 침략적 본성을 치장하고 8·15해방이후 이땅에 들어와 민족 자주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숭미사대 매판정권을 내세우면서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을 억압하였다. 이과정에서 그들은 서구의 온갖 현란한 잡사상들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켜 친미사상과 굴종사상을 만연케하고 그속에서 그들의 지배논리를 합리화시켜 그 본질을 은폐시킨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우리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개개의 상황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는데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동·서양 철학의 형성과정속에서 고찰되는 고대철학의 성격과 구조

철학의 근본줄기는 생산력 발전으로 근원적 자본축적이 가능해져 경제체제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부터 비롯되었다.

민족의 운명을 견인해나갈 근로민중의 주체적 철학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서양 고대철학의 여러형태인 희랍철학, 불교, 도가철학, 유교철학등 모두가 이러한 공통적인 사회적 상황의 성격을 띄고있다. 인류는 자연에서 역사로 즉, 원시적인 상태에서 고대사회로 질적변화를 일으키면서 역사에로 해방되었다. 여기에서 해방이란 의미는 철학의 「지배와 해방」의 상호 모순적인 변증법적 성격을 반영한 상태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지배와 해방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 대립적인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고대사회의 사회형태인 고대노예제는 노예들의 노동력에 기초한 자연에서 역사로의 해방철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해방은 완성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해방에 머물고 말았다. 이와같은 상대적 해방은 인간의 의식으로 하여금 절대적 해방을 관념의 하늘에로 투사하게 하는 지배자들의 논리로 발전된다. 플라톤의 이데아, 석가의 열반, 그리고 도가철학의 자연과 유교의 인(仁)등 불완전한 현상의 세계를 초월적 영역의 세계에 설정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체계 속에는 현상세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노동의 논리가 필연적으로 내포되어있다.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와 현실의 연결은 현실, 곧 그당시 노예가 생산하는 것을 돕는자(者)인 지배계급의 무제한 욕망을 제한하므로써이며 현실은 이 「섞음」을 통하여 산출된다. 그는 정신의 능동적 고귀성을 강조하고 육체의 수동성을 인정하므로써 이러한 것을 이후 모든 철학에 적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근세서양철학의 구조

칸트 역시, 사회는 시민계급의 의식으로 움직여진다는 시민계급관념의 현실화를 말하고 있다.

헤겔의 『정신 현상학』은 「지배와 예속」에서 「이성」에 이르는 의식의 발전과정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헬레니즘의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와 중세 기독교를 거쳐 근세시민사회의 「관념론(Idealismus)」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밝힌 고대서양사회에서 상대적 해방의 성격 또한 「철학은 사상속에 포착한 시대」라는 헤겔의 철학관에 따라 시대의 문제와 흐름속에서 파악할수 있다. 「예속과 지배」에서 그는 역사적·사회적 주체의식인 「자기의식」을 사회적 노동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규정한다. 「자기의식」은 「주인」과 「노예」와 「물(物)」의, 지배의 삼각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물(物)을 얻음으로써 「자기긍정」을 하게되어 물(物)과의 상호적인 연관성을 느낀다.

반면 노예의 경우, 물(物)에 대해 노동력을 가하므로써 단지, 물(物)에 대한 「의식」만을 가지게 된다. 자신이 생산한 물(物)을 소유할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는 노동을 통해 변화 하게된다. 즐기는 의식으로서 주인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물(物)을 얻게 되므로 사실상은 그속에서 물과 상호적 연관성을 갖지못한다. 반면에 노동을 하는 노예는 그가 생산한 물(物)속에서 자신을 직관하기에 이른다. 다시말해 자신의 노동을 통해 물(物)과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을 가질수 있게되고 더불어 「자기의식」을 가질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는것은 「미래의 장」에 속하게 되는것이며 이후에 전개되는 「자기의식」의 여러형태들은 다만 「이성」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철학의 주된흐름을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외된 노예의 노동 속에서 노동을 매개로 노예가 자신과 물(物)을 통일하여 상호 연관성을 가지려는 철학적 노력들을 불가피하게 택하게되는 퇴영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자기의식」이란 구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자기자신이 물(物)과 연관을 가지는 직관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속에서 노동한다는 것 또한, 사실상 「지배와 예속」에서 구체적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헤겔은 사유안에서의 철학적인 노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대상은 사유에게는 표상이나 형상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개념 즉 의식에게 직접적으로 그 자신과 구별되지 않는 식으로 구별되는 즉자존재(卽自存在)로서 운동한다.……사유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왜냐하면 나는 타자안에 있지 않고 그대로 나 자신곁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본질이 되는 대상은 분리되지 않은 통일 속에서 나의나(자신)를 위한 존재(Fürsichsein)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의 「자기긍정」과 노예의 「자기의식」은 서로가 물(物)에 대한 자신의 위치가 올바르게 자리잡지 못한 낯선 현실의 규정성으로 다가선다. 이러한 형태의 철학적 반성이 회의주의이다. 회의주의는 모든 현실의 규정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함을 통하여 「자기사유의 부동심(不動心:Ataraxie des selbst Denkens)」에 도달하게되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확신」이라는 긍정성과 앞의 부정성과의 관계를 합치므로 회의주의는 두계기가 동일한 「자기의식」에 속해 있음을 알고있다. 「지배와 예속」에서 주인과 노예로 분리되었던 의식의 두 계기는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화해되고 통일된다. 이 화해와 통일을 「자신이 모든 현실(Realität)이라는 확신」인 「이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헤겔은 말한다. 이 두계기의 화해와 통일로서 「중보자」의 기능을 헤겔은 「이성」의 특징으로 본 것이다. 헤겔은 그의 『철학사』에서 이와같은 중보자로서의 이성의 이념을 「세계정신의 보편적 원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 신앙과 지식」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개념은 자기의식에서 발전한 서구 시민계급의 자기해석으로 되며 그 중보자인 「이성」에 의해 노동은 긍정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현실에 합리적인 질서가 설정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실로 동양과 서양의 지나간 역사에서 새로운 노동의 양식이 정착될때에는 보편적으로 「중보자」를 매개로 하여 세계의 통치질서가 「이성」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설정되었던 것이다.

미제국주의 철학수입은 위정자들의 사대주의와 결부되어 남한 민중전체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현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며 그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역경』의 「계사전」과 「중용」에서 통치자가 천(天)과 인간사이에 매개가 됨으로써 자연에 대한 지배지식(支配知識)을 개발함을 통해 사회적 노동을 가능케 했다는 지배 이데올로기와도 일맥상통한다 할수 있겠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있어서 「이성」이란 추상적인 물(物)의 정립에 불과 할뿐 인간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설명된다. 그의 인간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연적 인간이라 할수있다. 자연적인간이란 물(物)즉, 그 대상(자연물)을 인간의 창조적 행위인 노동으로 가공하여 자신과 상호 연관성을 가질수있는것, 대상의 대상성을 인간이 확보할수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유(類)적 존재이다.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동물과 구별되는 종족의 의미를 갖게되고 또 유(類)로서 인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이 「근대 국민경제학자」들의 관점에 서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경제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物)의 가치는 노동자의 노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그 자체를 인간의 교환하려는 성향 속에서 비롯된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보고 노동자와 생산된 물(物)사이의 직접적인 소외, 즉 노동자와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생산물 사이의 소외를 은폐시킨다. 이렇게 「국민경제학」과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철학적 사유는 그 기능이 같은 것이다. 여기서 헤겔이 이룩한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 정신에 대립된 자립성 속에 있는 일반적인 고착적 사유형식들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사유가 보편적으로 소외(절대정신의 소외)된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 그리하여 헤겔은 그것을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이를 진술하고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헤겔의 소외개념은 마르크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 마르크스는 소외를 4가지 형태로 설명하고있다. 첫째는 노동 생산물로 부터 노동자가 그 생산물을 사용할수도 없고 또한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수도 없는 단지 임금으로 그생산물의 일부만 소유할수 있는, 생산물로 부터의 소외이다. 둘째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소외이다. 이것은 생산과정이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위해 노동자가 존재할때 비롯된다. 셋째는 유(類)적 본질로 부터의 소외인데 인간이 자본주의하에서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장점이 없어지는 존재로 되어버린다. 넷째는 이와같은 세가지 소외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으로 부터의 인간소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와 생산물 사이의 소외된 관계가 지양된 삶의 양식을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비로소 이 단계에서라야 자발적 행위는 물질적 삶과 일치된다. 그것은 개인들이 총체적 개인들로 발전하며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탈피하는 것과 일치된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이 자발적인 행위로 변하는것과 지금까지의조건 지워진 교제(Verkenr)가 개인들 자신의 교제로 변하는 것과 일치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양 고대철학이 관념의 하늘에 투사했던 인간의 절대해방차원적 관념성과 종교성, 그리고 계급성을 탈피하고 인간이 그의 소외되지않은 노동, 자발적 행위를 통해 그가 생산한 생산물과 현실속에서 그 자신을 직관하는 「인간적 사회, 또는 사회적 인간」(마르크스)에로 완성됨을 본다.

우리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서양의 예를통해 철학이 발전해온 줄기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전개되던 철학은 소외된 노동의 양식속에서 그 구체적인 노동의 본질을 사유속의 노동으로 변질시키려는 지배층의 의도와 노동주체가 「자기의식」 직관형성을 통해 「지배와 해방」이라는 변증법적 발전의 성격으로 규정되어왔고 이것이 마르크스에 이르러 노동의 주체가 그 대상물과의 통일로 진정한 발전을 이루게된다. 한국에서도 동학농민전쟁등 민(民)의 주체의식이 가장굳게 반영된것과 이러한것들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최한기, 최제우에서 찾아볼수있다. 그들은 서양의 발달한 문물의 힘, 기술이 인간소외의 측면이라고 보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하지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여기서 마르크스철학과 유사한점을 발견할 수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우리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8·15해방이후 제국주의 침략의도속에 수입되었던 지배철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의 철학적 수입은 위정자들의 사대주의와 결부되어 남한사회 전체의 의식을 마비 시키고, 또 그들이 퍼뜨린 철학사조들은 한국의 현존제도를 옹호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현존제도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갖지 못하게 하며 개인주의, 파편주의, 원자주의를 만연시켜 극단적 이기주의를 조장하고있다. 예를들어 실용철학은 유익한것이 진리라면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상을 선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 하도록 유도한다. 실존철학은 생의 목적이 죽음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불러 일으키게하는 방식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지인 남한사회의 모순적인 구조속에 근로 민중의 소외를 은폐시키고 그들의 억압과 수탈을 합리화 시키고있다.

우리는 이제 그 평가에서 한걸음 나가 우리 철학정립을 위한 적극적 작업으로서 (이것은 철학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실천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체적인 성격과 구조, 그리고 계기들은 이상의 서술을 통해 윤곽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철학을 형성시키고 철학사를 발전시켜온것은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이다. 때문에 현 한국사에 있어서 발전주체인 민중세력이 미제국주의의 요구를 대변하는 여타의 철학사상들과 타협하지않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현시기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점들, 즉,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한 튼튼한 기반으로서 계급적 자각에 입각한 철학이 절실하며, 민중이 지향하는 철학, 한국사를 변혁할수있는 철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헤겔의 철학적 관점인 「철학은 사상속에 포착된 그 시대」에 긍정하면서, 또한 「지배와 해방」의 대립적 통일을 이루는 과학적인 철학이 앞에서 언급했던것처럼, 현시기의 가장 올바른 사상을 포착하여 그 사상으로 대립적 모순간의 통일 기반을 다지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 바로 우리가 새로이 정립해야 할 과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기록정리
추인수기자
이명례기자

학술단신

□서울민중연합 민족학교 —제10기민족학교

3월 21일(화)부터 5월 12일(금)까지 민족학교에서는 매주화·금, 오후7시 30분부터 다음의 주제로 제10기 정기강좌를 갖는다.

▲3월21일(화):시강 「자주민주통일의 논리」(강사:이재오)

▲3월24일(금):문화 「민족문화와 외세문화」(강사:임헌영)

▲3월26일(일):등반대회

▲3월28일(화):농민 「한국사회구조와 농민운동」(강사:노금노)

▲3월31일(금):여성 「분단시대의 여성운동」(강사:지은희)

▲4월4일(화):교육「분단교육과 통일교육」(강사:유상덕)

▲4월7일(금):노동 「노동운동의 현황및 과제」(강사:천영세)

▲4월9일(일):현장교육

▲4월11일(화):정치 「분단구조와 한국정치」(강사:김광식)

접수는 민족학교교무처에서 받고있으며 자세한 문의전화는 739-0751, 736-3282

□민족해방열사 김세진·이재호열사 추모사업회—제3기 평화통일시민배움터

추모사업회는 오는 3월2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오후7시30분, 추모사업회내 강의실에서 제3기 정기강좌를 개최한다.

▲3월23일(목):「나라사랑의 길」(강사:고은,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의장)

▲3월30일(목):「민족자존의 회복을 위하여」(강사:문병란, 시인·조선대교수)

▲4월6일(목):「한미경제관계 실상」(강사: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원장)

성금은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 자세한 문의전화는 923-8807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제4기민주통일시민학교

시민학교에서는 오는 3월16일(목)부터 5월11일(목)까지 매주화·목, 오후 7시30분에 제4기 정기강좌를 열고있다.

▲3월16일(목):「애국의 길」(강사:문익환)

▲3월21일(화):「제주4·3민족민주항쟁의 실체」(강사:김명식)

▲3월23일(목):「북한사회에 내한 이해」(강사:이종석)

▲3월28일(화):「애국과매국의 역사」(강사:한홍구)

▲3월30일(목):「한국현대정치사」(강사:김광식)

▲4월4일(화):「통일운동의 과제와 전망」(강사:함운경)

▲4월6일(목):「민족민주운동의 진로」(강사:장기표)

▲4월11일(화):「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강사:박현채)

문의전화는 336-9718, 332-2561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제2기정치학교

3월16일(목)부터 매주 월·목 오후7시30분, 제2기 정치학교가 개최되고있다.

▲3월23일(목):「러시아사회주의혁명사」(강사:임민국)

▲3월27일(월):「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강사:이재화)

▲3월30일(목):「주체사상과 북한」(강사:김남식)

▲4월3일(월):「8·15이후 3년간의 사회주의운동사」(강사:정해구)

▲4월6일(목):「한국경제의 예속구조」(강사:박현채)

(위 강좌중 4월12일이후의 일정은 추후개제)

"어느 누가 이을건가"

UN동시가입, 교차승인
팀스피리트훈련, 소위 북방정책…
순결한 이 조국강토를 영원히 갈라 세우려 하는
「2개의 한국」음모,
2개의 한국을 받아들이려하는
우리의 「2개의 마음」을
이어야 한다.
이어진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너와나의 조국통일을 위한
갈라지고 찢겨진 이 산하를 잇기위한
매듭을 엮어내야 한다.
너와나, 우리가

외 대 학 보

강철같은 단결로 종파주의를 혁파하자

박 재 천
〈현대사연구가〉

1. 「단결은 생명」이다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단결하면 인간되고 분열하면 노예된다』

지난 87년 6월민주항쟁과 7·8월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근로민중은 투쟁과 승리의 열쇠로서 위와 같이 자각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당시투쟁에서 일시적 영광을 얻었으나, 12월 대통령선거투쟁에서는 분열로 인한 패배의 치욕을 맛보아야 했다. 『적전분열(敵前分裂)은 자살행위』라는 말의 실례였다하겠다.

우리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은 우리민족의 영구분단을 획책하여 예속시키려는 미제국주의와 그 대리통치세력인 군사파쇼를 「적」으로 하는 생사를 건 비타협적 투쟁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침입한 미제국주의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고, 대리통치세력 또한 완전무장해제되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다시말해 서로 화해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투쟁」인 것이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투쟁을 수행함에 있어, 대중의 전투적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분열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자세로 견결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파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2. 「종파주의」란 무엇인가

종파주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에 의해 내려진바 있다. 『종파는 혁명정당의 문제에 대해 특정한 견해의 정강으로 뭉친 혁명정당 내부의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조직은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로서, 조직대중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열의를 발양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앙집중주의로서, 혁명이라는 목적 성취를 위한 합목적성과 통일성을 갖게하는 것이다. 양자는 상호긴장되면서 더불어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 없는 중앙집권주의는 관료주의로 타락하여 조직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또한 중앙집중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무정부주의로 타락하여 혁명조직을 논쟁클럽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특히 중앙집중주의는 혁명조직이 오직 하나의 지도중앙, 즉 단일한 지도기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오직 단일한 지도중앙에 의해서만이 조직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토론과 선출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립된 단일한 지도부에 반대하고, 별도의 중심을 만들려는 온갖 다양한 시도를 일컫어 레닌은 「종파주의」라 규정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사대적 교조주의와 민족해방 당면과제의 몰이해가 종파적 분열 주의를 초래한다.

종파주의는 조직대중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지도부와 다른 정책, 노선을 갖는 집단이 자기나름의 중앙을 형성하고 그 다른 견해들을 선전하는 것이다. 물론, 토론과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조직의 민주주의가 소수의이해와 의사를 다수의 전 조직에 강요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혁명조직은 원칙에 관한 문제나 근본임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나 무원칙성을 보여서는 안된다. 레닌이 지적했듯이, 『혁명조직이란 반조직적 견해를 선전하는 자들을 스스로 내쫓지 않으면, 먼저 사상적으로, 이어서 물리적으로 파괴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능한 지도기관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반드시 한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결국, 종파주의는 혁명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이나 협소한 분파의 이익만 노리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과 그 조직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소부르조아 인텔리들에 있어서는 개인영웅주의, 출세공명주의가 강해 혁명운동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에 대한 야욕을 발동하기 쉬운 결함이 있는데 이것이 종파를 끊임없이 생성시키는 원인의 하나이다. 종파주의는 그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신의 정강, 정책, 노선등을 표방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종파주의에 대한 투쟁은 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노동운동을 비롯한 근로민중운동에 해악적인 사상에 대한 투쟁과 결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즉, 종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조직형식상의 문제나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는 사상적 입장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 서서 오류와 한계, 나아가서 그 잠재적 범죄성에 대해서도 폭로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재적 범죄성을 말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종파적 견해차이라도 혁명운동이 복잡한 국면에 돌입했을 때 반혁명의 진영으로 넘어가 결국엔 적대적 관계로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 했기 때문이다. 그 일례를 들어 보자면, 러시아의 멘셰비키들은 10월혁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중국혁명 과정에서도 「장국도」는 장정과정에서 당 중앙과 대립하다가 마침내는 국민당의 진영으로 투항해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직후, 미국을 해방자로 잘못인식했던 일부 활동가들이 우리 변혁운동의 민족해방운동적 성격을 간과했기 때문에 전략·전술의 결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해 대중들을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게했다. 뿐만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스파이로까지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민중
해방
전민련
특집 I
“종파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3. 우리운동에서 종파주의의 근원

우리 민족해방운동에서 종파주의는 역사적으로 1920년대로까지 거슬러올라가는데 대체로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결합하여 나타났다는 점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러시아, 중국)에 의존하여 제나라의 해방을 성취시켜보겠다는 의타적 태도이며, 교조주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혁명의 일반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이 역시 의타적 태도이다. 사대주의는 큰나라의 경험에서 추출된 혁명이론을 무조건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비주체적 태도로서, 결국 교조주의와 통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두가지 태도는 제나라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변혁을 성취하겠다는 자발적이고, 주체적 관점이 결여된데서 나왔다는 점이 동일한 뿌리에서 연유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대주의·교조주의와 결합된 종파주의가 1980년대 우리 변혁운동 선상에 모습만 달리하여 다시 출현하였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운동(특히 학생운동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현실개혁운동)에서 출현한 종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있다.

첫째, 마르크스나 레닌도 엄연히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인식의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데서오는 이들의 저작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이다.

마르크스는 제국주의시대 이전에 생존하고 활동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레닌또한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발전 초기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모택동역시 제국주의가 침입해온 식민지 반봉건사회였던 중국에서 혁명투쟁을 했기 때문에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해답은 주었지만 제국주의의 강점으로 분단된 나라에서의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할수는 없었다.

둘째, 우리 변혁운동의 근본성격이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점에 대한 몰이해이다. 우리사회가 식민지사회인가의 여부에 따라 우리 변혁운동의 근본성격, 임무, 역량편성이 다르게 파악된다. 여기서 식민지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신식민지라고 부를 것인가의 여부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식민지적 본질을 인정하는가의 여부, 다시말하면 제국주의의 지배를 사실로 인식하고 제국주의를 주적(主敵)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해방직후 남로당의 오류들중에 가장 중차대한 것은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잘못이해한 점이고, 이에따라 반미민족통일전선의 관점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1980년대 우리 운동 선상에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해방운동적 관점의 결여등과 결합된 종파주의가 출현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변혁운동은 6·25전쟁과 그 이후 계속된 파쇼적 폭압정권으로 인해 거의모든 지도역량이 파괴되어버렸다. 그결과 1970년대이후 성장한 우리의 운동역량은 혁명전통과 단절된채 자연발생적으로 (정통성있는 지도부의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다)성장해야했다. 70년대나 80년대 초기까지 접할수 있었던 이론서적은 이영희·박현채선생 등의 합법서적과 종속이론, 루카치류의 네오맑시즘 따위가 고작이었다. 세계혁명사에서 정통성이 인정된 원전들은 그 보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나마 서방 자유주의 학자들의 시각을 통해 굴절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형성된 시각은 소박한 민중주의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의식 정도였다. 가장 중요한 민족적 관점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침윤된채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족분열의식·반북의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노동계급의 철학을 지닌 민족해방 투쟁과정에서 종파주의는 자연소멸해

그러나, 1980년 이후 전두환 정권의 폭압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투쟁으로 단련되고 확대된 학생운동 내에서 정통원전에 대한 요구가 85년을 전후하여 극히 높아졌다. 이당시에 레닌의 저작들이 특히 열광적으로 읽혀졌다. 그것은 전통과 단절된채 자연성장해온 활동가들에게 세계혁명사에서 마르크스 다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듯이 보였고, 따라서 거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양 기대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20세기초, 제국주의국가 러시아에서 혁명을 수행한 레닌의 「이론」을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사회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던데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최고의 이론가 레닌의 권위에 의존하여 가장 정확한 교조를 얻으려 했지만, 그들은 레닌이후 혁명운동 발전과정에서 보다 풍부하게 발전된 이론들, 예컨대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나 반제민족통일전선론등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가장 저질의 이론가들로 전락되었다. 이흐름의 대표적인 예는 「제헌의회 소집」슬로건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룹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우리나라의 혁명전통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을 멸시했다는 점에서 사대주의였고, 북한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반북한적 태도를 본능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민족허무주의이자 민족분열주의였다. 또한 그들은 원전과 교조를 우리 현실에 기계적·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교조주의였다.

근래에와서 「제헌의회그룹」은 사실상 지리멸렬되었지만, 다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론」으로 나타나는 부류가 나름의 교조와 주장들을 다량 배출해내고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의 원전을 근거로 우리사회의 식민지로서의 본질을 부정하고 민족해방운동을 비웃으며 반북한적 분단논리마저 서슴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 자본주의가 발전했으니까 국가독점자본주의이고 남한에서 사회주의까지 실현한 뒤에야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민족해방운동적 관점이 결여되어있는 자들이다.

이상에서본 바와같이, 우리운동에서 종파주의의 근원은 6·25전쟁 이후 분단상태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전통과 연결되지 못하고, 운동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오면서 소박한 변혁에의 열정과 원전의 단편에 의지하였던 역사적 취약점에 있다 하겠다.

4. 자주성의 확립

종파주의의 극복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투쟁과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의 입장에 철저히 서는것, 즉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세기를 지속해온 민족해방투쟁의 현대적 산물로서 오늘의 모습을 형성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서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을 합친 전체의 단위에서 변혁을 성취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과거에 쌓아올린 투쟁경험과 업적을 현재의 투쟁을 위한 재부로써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모든 착취와 억압을 폐지하기 위한 근로민중의 투쟁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의 현실에 뿌리박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 발동시키는 입장을 앞세우고, 개인의 출세, 공명주의나 소그룹의 영도권쟁탈에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근로민중에게 잠재해있는 무한한 힘과 지혜가 발동되어 나갈 때, 곧 근로민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서나가기 시작할 때 종파주의는 자기 설 땅을 잃고 소멸해갈 것이다.

외대인이 주인되는 학생회

이 해 웅
〈동양·인도어4〉

총부학생회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막상 별성과도 없이 마치고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도 컸었다. 한데 이렇게 이문동의 통일·단결을 위해 작은 글이나마 쓸 수 있게된것을 내게 주어진 반성의 기회라 생각하고, 비록 일천한 것이지만 작년의 사업과 투쟁을 통해 얻은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몇자 쓰려고 한다.

진정한 통일, 단결, 즉 8천여 애국외대인이 하나됨, 주인됨을 위해서 우리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급 학생회의 강화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급학생회가 주인된 애국외대인의 조직으로 굳건히 섰을때, 제기되는 모든 지향과 요구, 그리고 정책과 노선이 애국외대 학우들의 자주적인 것이 될수있는 것이고 그러한때만 비로소 대중과 유리되어서 당리당략만을 꾀하는 종파주의는 척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각급의 학생회를 강화하고 굳건화할 수 있을까? 우선 학생회 보조조직의 강화를 들수있다. 또한 학생회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운영과 학원민주화·자주화 투쟁의 강화등 많은 방법이 제시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것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가지 예로 조직적대안의 제시를 살펴보면 총학생회의 합법화(구학련, 비밀학생회, 활동가체계, 지지협조체계, 통민학련등)이후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실행되었었으나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진정으로 애국외대의 실정에 맞게 학생회를 강화시키는 것은 간부들의 자각과 책임성·헌신성 그리고 애국외대 학우들의 주인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활동가는 외대인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 학생대중 모두가 주체로 설수있게 해야한다

학생회 간부들이 회원 모두를 학생회의 주인으로 보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어떠해야하는지를 나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시해보겠다. 첫째, 룸펜적 사업작풍을 버리고 학우들과 같은 규율성을 확보해야한다. 늦게 등교해서 학생회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져야 회의를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생활태도를 그렇지 않은 일반학우들과 함께 행동하는 태도로 고치는 것은 학생회 강화에 매우커다란 의의가 있을것이다. 등교시간에는 주위의 학우와 같이 등교하고, 식사도 되도록 과학우와 같이 하는 것은 일상적 만남의 강화이고 아울러 학우들이 이해와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사업을 창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대자보,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끝내려하지말고 공청회나 단대·과설명회등의 일반적 방법과 과·동아리·동문선후배와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학생회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세째, 상시화된 구체적 평가와 이를 토대로한 연구의 기풍이 마련되야 한다. 그동안 매사업평가때만 내렸던『준비부족이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진행상의 문제였다』등의 추상적 평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를 토대로 극복을 위한 연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부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고해서 학생회의 강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학우들의 주인된 태도와 주인된 역할 수행이 결합해야 이는 성과적으로 완수될것이다. 애국외대의 각급 학생회 회원인 8천학우들은 우선, 주인된 태도를 명확히 하여 학생회의 모든일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개진하고 자신이 갖고있는 여러구체적 재능을 이용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학생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해있고,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할 과사업에는 보다 자발적참여가 필요하다. 과M·T, 과학생회발대식, 과신문 제작, 과회지발간등의 과사업에 적어도 한가지씩은 주체적으로 참여하자. 아니 각급학생회가 자주·민주·통일, 그리고 애국외대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애정어린 눈길로 확인해보기만해도 좋다.

이상과 같이 주인된 간부와, 역시 주인으로 일어선 애국외대 8천여회원이 존재한다면 미·노태우일당을 이롭게하는 망국적인 종파주의는 우리 이문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모두가 주인이 된 애국외대의 새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투쟁할것을 약속드린다.

조선일보는 이제 민족과 민주를 위해 자폭할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조선일보 분쇄 투쟁을 선언하며—

우리 8백여 대학신문 기자일동은 조선일보가 그간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죄악을 환골탈태의 각오로 스스로 뉘우치고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으나 오히려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극우반동적 준동을 보면서 민족과 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없어져야 된다고 단정하고 이에 「조선일보분쇄투쟁」을 선언한다.

75년 민주언론을 위한 양심적 기자들의 외침을 테러와 해직으로 짓밟고 80년 언론통폐합을 신군부와 공모한것, 그리고 87년6월 항쟁을 일부 불순분자의 폭력책동으로 내몬 죄악이야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가 더욱 분노를 금치못하는 것은 고문치사범에게 떳떳이 「청룡봉사상」을 수여한 사실이다. 국민의 최선봉에 서서 민주화를 외쳐야 할 언론이 민주를 짓밟는 고문치사범에게 신변보장까지 해주며 상을 수여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일제식민통치에서부터 민족해방과 민주쟁취의 행동대로서 자기역할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조선일보의 이같은 행위는 지배권력의 편에서 반민주, 반민족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자기 표현으로 해석하고 조선일보 분쇄 투쟁에 들어간다.

최근의「조선일보-평민당」싸움도 그러하다. 「어머니의 노래」방송평에서 「균형론」을 내세우며 학살자들을 은근히 변호한 「양시론」이 어찌하여 평민당 기사에는 견디지 못하는가. 기사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왜곡된 양시론 조차도 특정집단에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고 국민의 입인 언론을 탄압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가 자사의 문제로 지면을 도색해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일방적, 의도적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태도는 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의 공범 방우영에게 질문공세를 편 평민당에 대한 유치한 보복행위라고 단정한다.

우리의 주장이 이렇다하여 평민당을 옳다고 편드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확대를 위해 중간평가를 놓고 노태우와 야합하려는 평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우리의 반조선일보 투쟁은 그들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돼도 안된다. 다만 우리는 창간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져온 조선일보의 「곡필전통」을 척결하기위해 우리의 역량을 민주언론정착을 위한 언론개혁에 집중코자 할 뿐이다.

일제식민통치하에서는 「친일동화주의」를 8·15이후에는 「체제수호」를 외치며 민족해방, 민주쟁취의 대열에 적대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폭해야 한다.

자유언론실천 대학신문기자연합회 산하41개 대학신문사는 본격적인 「조선일보분쇄투쟁」에 앞서 다음을 촉구한다.

-75·80년의 언론학살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해직된 기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할 것.

-고문 치사범 유정방, 이근안에게 청룡봉사상을 수여한 사실과 관련 그과정과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

-「대학」시리즈, 현대-지하철 파업기사 등에서 보여온 극우 반동적 편집태도를 시정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 공개 사죄할 것.

-「조선일보-평민당사태」에서 보여 온 독자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자사문제로 지면을 도색하는 유치한 자세를 사과하고 그 진상을 밝힐것.

-조선일보 노조는 지금까지의 침묵에서 깨어나 전횡을 일삼은 방우영을 비롯 그에게 빌붙은 간부들을 몰아낼 것.

-위 사항들은 성실히 수행하고 난뒤 방씨일가의 주식을 국민에 헌납하여 참 민주언론으로 다시태어날것.

우리는 이의 성실한 수행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의 전국적 불매운동은 물론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조선일보 분쇄투쟁을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공개 선언하는 바이다.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건대신문사, 경대학보사, 경원대신문사, 국제대학보사, 대학신문사, 대학주보사, 고대신문사, 광운대신문사, 국민대학보사, 단대신문사, 덕성여대신문사, 동덕여대학보사, 동대신문사, 명대신문사, 상명여대학보사, 서강학보사, 성의학보사,서울교대학보사. 서울산업대신문사, 서울시립대신문사, 서울신학대학보사, 서울여대학보사. 성대신문사, 성신학보사, 성심대학보사, 세종대학보사, 수원대학보사, 숙대신보사. 숭실대신문사, 아주대학보사, 연세춘추사, 외대학보사, 이대학보사, 인천대학보사, 인하대학보사, 중대신문사, 한성대학보사, 한신대학보사, 한대신문사, 항공대학보사, 홍대신문사)

반종파투쟁을 제안한다

–자기혁신과 조직혁신의 일꾼이되자

특집Ⅱ
외대인의 단결을 위한 제언

I. 글을 시작하며

변혁운동이 질적으로 고양함에 따라 모든부문 운동은 대중운동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남한사회 변혁운동역량이 일정정도 질적도약을 이룩하면서, 「학생운동」도 「대중운동화」에 따른 몇가지 검토가 시급하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 근거지로 삼고있는 외대내 운동현황을 점검하면서, 85년도, 86년도 서울대·고대를 중심으로 경향각지를 강타했던 반종파 투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의 혼란속에서 명확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외대가 시급히 실천해야 할 자기혁신의 첫째가는 과제야말로 종파주의의 척결이라는 것이다. 「종파주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앞의 글로 대치하면서 이글의 몇가지 전제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글은 필자의 제한된 능력과 서울캠퍼스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대중사업과 대중간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캠퍼스 모두가 예외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둘째, 분파·정파·종파등의 다기한 표현등으로 인해 글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써클적·분파적 이익을 민중의 당파성으로 허세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호도하는 개인적·조직적 이기주의를 종파주의」라고 정의하며, **종파주의에 대한 절대적이고 결연한 투쟁**을 제안한다.

세째, 논의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정치노선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생회체계속에서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활동가 내부에서 제기되는 종파주의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디뎌야 할 곳이 그 어느곳도 어느책도 아닌 분열된 식민지반도의 남단이며, 외대의 운동이 바로 서야할 곳은 1만2천 외대인 모두가 학습하며, 생활하는 모두의 가슴속이어야, 또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제안할 반종파투쟁에 대한 종파적 해석과 반발을 뒤로하면서 이제 새롭게 혁신해야할 외대의 반종파 투쟁을 시작하자.

Ⅱ. 자기혁신과 반종파투쟁

80년의 뼈아픈 경험은 변혁운동의 선두주자 청년학생들에게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기본관점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제기는 80년대 운동을 6·70년대 운동의 자생적·비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는 「의식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84년부터 「사상투쟁」을 근거로 하는 분열이 시작되었고 한때 운동의 대의를 잃어버리기까지 하였다. 외대내 운동역사도 다른대학과 큰 차별성이 있었던것은 아니다. 학원자율화조치이후 써클(Circle)·팀(Team)·패밀리(Family)로 불리우던 비밀지하학습 소조체계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학내운동은 86년도 **반종파투쟁의 경험속에서 운동의 비밀주의·형식주의를 혁신해내고 통일과 단결을 결의했다**. 이것은 외대내 운동에 대한 과학성과 대중성에 관한 첫 문제제기였으며 86년의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외대내에서는 학습구조, 생활기풍, 대중사업작풍등의 혁신이 없는 주체혁신의 불철저와 써클(현재 동아리의 개념이 아님)의 온존, 분파주의의 지속성등으로 인해 실제적 단결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렇듯 불철저하게 진행된 반종파투쟁은 필연적으로 87년도 21대 총학생회의 사업불명확성, 조직사업의 연계전무 각정파간의 의견대립에 의한 내부분열로 나타났다.

투쟁사업은 활동가단위의 정치사업으로 일관되었으며 6·10투쟁에서 나타난 학생대중의 많은 가능성조차 조직적으로 강화해낼 수 없었다. 정치력이 부족한 총학생회를 대상으로한 분열공작과, 정파간의 지나친 대립으로 인해 총학생회는 학생조합의 주인인 학생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당했다.

과학적·대중적 토대갖는 대중운동으로 성장해야

학생대중은 모든 조직과 운동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88년 22대 총학생회는 집행부내부의 종파적 분열과 음모적이고 패권주의적이었던 지난총학의 운영형태를 극복하면서 학생대중들로 부터 일정정도 신뢰성을 회복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외대운동자체가 조직적으로 정비되고, 새롭게 출발한것이 아니라 정치노선의 혼란속에서 나타난 일부 활동가들만의 축적물이었다. 학생회는 학생대중의 생활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계층적 이해를 식민지 청년학도가 가지는 자주·민주의식과 하나로 묶어세우는 투쟁의 구심체인 학생자치조직, 계층조직으로서 자기위상을 갖는다. 22대 총학역시 기층학생대중의 조직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지 못한채 학생대중을 계기성투쟁 중심으로 투쟁의 주인으로 세우기보다는 객체로 취급해 왔던것이다. 대중사업속에서는 86년부터 심각하게 드러났던 분파주의적 모습이 구체적으로 극복되지 못한채 선진대중대오를 스스로 파괴시킨다든지, 단결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조급성과 관념적 사업작풍으로 인해 총학생회 자체를 구체적인 학생조합으로 강화시켜내지도 못했다.

87년에 학생대중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에 시달리던 분파주의 문제가 새삼 88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지난해 있었던 각 단과대학생회장·총학생회장 선거일정연기에 관한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외대내 종파주의의 구체적인 실례로 적당하다. 「광주학살·부정비리원흉 전두환과 공범자 노태우 구속·처단투쟁」을 조직하고, 11월 총궐기를 준비하던 시기에 서울지역 거의 전대학은 학생회장선거열기에 휩싸였다. 시종 제도언론에서는 학내민주화문제가 선거의 촛점이 되었다며 일면적인 왜곡보도가 성행하기도 하여 씁쓸하기도 하였지만 외대내 상황은 선거연기냐 강행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선거공간은 총궐기를 호소하고 학생대중의 정치사상적 의식을 각성시킬 수있는 훌륭한 공간이며, 지금 선거를 미루는 것은 학생대중과의 약속에 대한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는 주장과 「학내선거가 아직 부르조아정치적 관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시 선거는 한표 한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뿐 실제적인 정치선전의 장이될 수 없으며 필연적 총궐기 투쟁은 실패할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각 단과대학의 사정에 따라 강행 또는 연기로 결정되고, 총학생회장 선거까지 실시되었다. 그당시의 논쟁내용의 정당성은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냉정히 그 결과물을 평가해 보아야한다.

첫째, 총궐기를 위한 선거일정연기 자체에 대한 순수한 문제의식 보다는 각각의 분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종파주의적 시각이 총학내외에 팽배해 있었다는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실제적으로 선거와 총궐기를 결합시키지못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둘째, 선거공간을 이용한 총궐기호소는 대중적 궐기를 이루어 내지 못한 사실과 극히 일부만의 참여밖에 이끌지 못했다는 점으로 답변된다.

세째, 선거연기를 둘러싸고 학생대중으로 부터 종파주의적 분열이라는 지적만 받았을 뿐, 사실 정치노선에 관한 선전, 또는 대중의 의식화·조직화 사업은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네째, 투표지 한장에 당락이 걸린 제도정치권적 선거로 타락, 오히려 선거공간은 학생회의 단결을, 주인의 참여를 가져오기 보다는 분열을, 방기를 가져왔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각 단과대학생회장 선거율에 크게 못미치는 50%내외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결국 88년 11월의 학생회선거는 광범한 정치적 선전과 조직강화에도 복무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선거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대중간부의 검열을 위한 선거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당시의 당면한 투쟁사업을, 그리고 선거자체를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사고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점이다. 11월 투쟁을 끝까지 담보해내지 못한것은 사실 당시 종파적관점과 혈연지연에 얽매이는 분파성을 조장한 선거참여자인 우리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치노선상의 극명한 차이와 각 분파의 조직적단결의 한계속에서 어떻게 매시기 통일과 단결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의 관건은 역시 대중사업과 대중조직에 관한 기본적 관점의 문제이다.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학생대중을 운동과 투쟁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각분파의 주도권투쟁으로서 학생회를 바라보고 이에따라 제반요직을 각분파의 나눠먹기식 또는 다투어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대중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조직내부에서 분파활동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해서 대중조직의 집행력을 방해하고 그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불순한 종파주의적 사고들도 있다.

현재 다기하게 제기되고 있는 학생회 조직노선에 관한 이견에 대해서는 추상적논쟁보다 외대의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점과 대중조직과 혁명적 결사(당조직)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자.

먼저 각과 학생회를 민주적학생조합 위상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실제적인 집행력을 갖게해야 한다는 점이다. 총학생회–단대–각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간부직에 활동가를 배치하고, 구체적 사업을 선진대중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기도 하며 현재는 이러한 현실이 도리어 외대운동의 질적발전을 막아서고 있다.

둘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각단대장참여), 확대운영위원회(과회장참여)의 분절적운용(총학, 단대, 학과의 연결선이 분리 되어있다)을 배제하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해 모든 대중사업속에서 보이지않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내에 잔존하는 제정치적 견해와 학생회체계와의 조직적연관 문제이다. 실제로 학생회조직노선에 관한 차이를 볼제로 분리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중사업을 기초로 현재까지의 사업작풍을 검토하고 이후 조직적 관점에서 재검토되길 바란다.

급박하게 준비된 글을 정리하면서 외대내 산개해있는 활동가에게 몇가지 제안을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학습과 조직적학습의 전과정속에서 **외대내 운동실천과 유리된 추상적관념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조급한 전위의식으로 표현될때도 있고, 대중사업장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둘째, 자신이 현재 자리한 모든 공간에서 **대중활동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개화된 직책을 맡든, 맡지않든 대중간부로 헌신하고 각기학생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조직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만나고, 무슨말을 해서라도, 학생회혁신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세째, 자기혁신투쟁**의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협애한 조직이기주의, 종파주의의 내용을 개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주변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능동적자세와 모든 사업과 투쟁의 주인으로 학생대중을 세울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네째, 자신이 시작하는 주체혁신으로부터 **조직혁신, 학생회혁신의 일꾼**이 되자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사업역량을 대중사업강화에 투여하고, 그안에 산재한 분파주의와 직접적으로 투쟁하면서 전체 학생대중의 저급한 학생회이해수준, 사회모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고시키는 헌신적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계층적이해와 자주·민주 의식을 묶어세우는 학생자치조직이다

Ⅲ. 글을 마치며

대학내 많은 인텔리운동가들은 잡계의식속에 항상 자기중심주의가 작동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은 없고 남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도 문제는 있지만 남들은 더 문제가 많다고 자신들이 큰 잘못을 하고도 『그렇다면 당신들은 뭘 잘 했느냐』라고 강변하면서 남들의 잘못에 자기위안을 찾는 이러한 소아병적 사고는 백년이 가도 종파주의의 양분이 될뿐이다. 사실 변혁운동의 힘은 아직 하나가 되어도 너무 모자라고 각 정치노선상의 구체적 오류와 한계는 과정속에서 불가피하다. 문제는 모두하나로 되는길, 현실에 뿌리박으면서 전체대중을 실제주체로 떨쳐나서게 하는 길, 이일에 전체가 어떻게 공동노동으로 복무할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외대에서 보여지는 분열적 모습은 통일을 향한 운동의 과정이고, 또한 분열을 간과한채 무원칙한 통일은 있을수 없는것이며, 분열을 무시한 단결은 무의미하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의 현실을 대함에있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실천되고 검증되기 까지 모든이론과 정견은 가설일 수 밖에는 없다. 이러한 정견을 앞세워 분리와 분열을 정당화하거나, 이것을 통일시킬때에만 통일은 가능하다고 사고하는 획일성과 무지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각각의 이론이 각기실험실에서 검증된다면 좋겠지만 사회역사운동은 실험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개별실천은 민중과 압제자라는 하나의 실험실만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내부에는 동지애적 이론투쟁과 민주적 단결 실천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이제는 외대내의 혼란했던 과거를 덮어두기보다는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반종파투쟁은 활동가대오의 학생대중에 대한 책임성과 헌신성, 각성원의 주인된 자각으로만 가능하다. 대중과 함께 실천하는 대중운동으로서 철저히 개조되어야 할 외대의 새출발을 위하여 과학적·대중적 토대를 굳건히 해나가자.

〈학술부〉

학생운동의 새전기를 맞자

류 준
〈사범·한교3〉

조국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청년학도는 조국과 민중의 현실을 방관하지 않는다. 하여 온갖 악법과 폭압기구로 무장한 파쇼권력과 조국을 동강내고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학생운동은 일정정도 정체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정체는 퇴보가 아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의 전단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현재 학생운동의 상황을 외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진보적 학우들의 정파별로 사분오열되어 있다. 이는 외대만의 상황은 아니며, 진보적 학우라면 누구나(아니 일반학우들도)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을 극복할 대안이 부재한 채, 원칙없는 「대동단결」이라는 구호만 난무하거나, 「우리운동의 한계」운운하며 이를 해결할 노력을 방기하는 패배주의적 경향마저 유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학우들의 조직인 학생회가 학우들과 분리되어 있다. 현재의 학생회는 학우들에게 「정치투쟁체」정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학우들로부터 학생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앗아가 버리고 그들의 주체성을 발휘할 여지를 삭감하고 있다. 작년 2학기 비상학생총회가 학우들의 저조한 참여로 무산되었던 것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째, 급박하게 변화하는 정세로부터 요구되는 투쟁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중적인 투쟁이기보다는 활동가 위주의 투쟁이 되고 있다. 네째, 진보적 학우들이 최근 정치투쟁전선에서의 이탈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외대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 어느 지방에서도 현재 학생운동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전선으로부터의이탈이요, 침체이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긴장감없이 관성적이고 느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조건에 타협을 하거나 활동의 원칙을 상실하고 편리한 방식으로만 운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 학생회· 진보적 학생 공개 정치조직건설로 운동의 대중화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중들이 자신의 조직을 건설하고 공공연히 정치적 진출을 하고 있는 지금은 분명 변혁운동이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학생운동 또한 새로운 질적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학우들이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생회를 건설해야 한다. 학생회는 모든 학우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대중조직이다.

학생회는 의식순준에 있어 편차가 있고 이해와 요구가 다양한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실현하는 대중자치조직이며 생활조직이다. 또한 남한의 계급투쟁의 조건상 정치투쟁을 요구받는 정치조직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상을 갖는 학생회가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학우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생회의 건설·강화이며 이를 통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체계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둘째, 진보적 학우들의 공개적인 정치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는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진보적 학우들로 구성하여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투쟁대오를 꾸려 학생운동이 부여받은 정치적 과제를 과학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동성있게 수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학생운동의 사상적 통일의 전망을 가지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민주적 학생회와 상호보완하며 건설될 때 학생운동은 질적인 비약을 맞이할 것이다.

끝으로 외대의 진보적 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운동관과 운동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재점토를 통해 학생운동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나갈 진보적 학우로서 가져야 할 전문운동가로서의 운동관에 대한 전투적 논의와 정식화를 해내자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과학성을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대중운동은 어떠한 것이겠는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89년도 신입생에 주는 "대학생활 안내"에 관한 공개 질의서

수신:부총장님과 관련 처장님 귀하
발신:애국외대 구국왕산 총학생회
안건:"대학생활 안내"의 내용에 관한건

1) 학생 후생 복지 부분의 왕산캠퍼스의 학교 지정의료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와 학교 직영 복지 시설에서 왕산 캠퍼스의 복지시설이 전혀 적히지 않은 이유는?

2)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회 회칙의 제5절 운영위원회 제31조(구성)에 있어서 이문캠퍼스와 왕산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은 공히 공동의장으로 회칙이 개정되었으나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없고 아직도 회칙상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은 이유는?

3) 용인 캠퍼스의 도서관 시설 이용 안내와 도서관 시설 배치도가 없는 이유?

결론적으로 왕산 학우를 위한 대학생활 안내는 책자에 나와있지 않고 이문캠퍼스 위주로 나와 있기에 다시 왕산 학우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의 용의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은 총학생회와 일반 학우들에게 공개적 방법을 통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3월 9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염원 45년 3월 6일

애국외대 구국왕산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 원 철

학생생활연구소

수신:왕산총학생회
제목:대학생활안내질의(89.3.6)에관한건

대학생활안내 책자의 편집자로서 귀 학생회측에서 제기한 미비점에 대하여 편집자가 미처 유념치 못해 일어난 결과임을 인정하며, 왕산 5,000학우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1. 대학생활안내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과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모아 1985년 부터 책자로 발간되어온 것으로 금년(1989)도에는 풍부한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을 주요 부분중 하나로 다루었습니다.

2. 본 책자의 편집이 88년11월중에 이루어졌으며 관계부처에 서면 및 구두로 내용을 검토, 보완토록 요구하였고 수정 보완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난해 원안그대로 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3. 지난호의 편집과정 중 왕산 총학생회에서 제기한 문제등 미비된 부분은 차후에 반영할 것이며 왕산캠퍼스 제반 내용이 더욱 충실히 포함되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1989년 3월 8일

학생생활연구소 소장

대한 지배기구 개편으로 강화되는 CIA공작정치

이상민

〈현대사 연구가〉

Ⅰ. 파문을 일으키는 그레그의 미대사 취임

미국의 새 대통령 조지 부시는 지난 1월 7일 자신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자 차기 정권인수반 공동의장이던 「도널드 P 그레그」(Donald. P. Gregg)를 제임스 R 릴리에 이은 신임 주한미대사로 지명했다.

한국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전개와 함께 반미자주화의 기운이 시대적 정신으로 분출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 조국통일의 기운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또 다시 릴리에 이어 두번째 CIA출신 미대사가 될 그레그의 지명은 아직도 정보공작차원에 머무르고있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는 계기가 되고있다.

Ⅱ. 경력35년의 CIA맨, 그레그

그레그는 CIA에 입사, 공작통제부에 근무하게된 1951년부터 1976년까지 거의 25년을 아시아에서 해외근무를 하였는데 그 마지막 기간인 1973년~76년을 CIA한국지부장으로서 맹활약한바 있다. 그레그의 대 한국관은 과거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바 있으며 「빨갱이를 족쳐 죽이는 원시적 본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 되는 홀링스워드 장군을 극찬하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홀링스워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은 9일 만에 그 전쟁을 끝낼수 있는데 전체 9일 중 4일간만 「실질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나머지 5일간은 빨갱이를 싹쓸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광신적인 반공주의자이며 미국제1주의자였다. 그레그 역시 그러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CIA한국지부 제7대 지부장 그레그의 재임중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박정희와 그의 추종자들이 제멋대로 일을 진행시켜 미국의 통제 범위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납치사건과 이후락제거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자 당시 일본에 있던 김대중은 귀국을 단념하고 해외에서 반유신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의 비밀지령에 따라 73년 8월 8일 일본동경 팔레스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을 납치·살해하려 했다. 미국은 박정희의 독주를 견제하고 박정권과 보수야당 모두를 자기의 통제하에 두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 전자도청을 주요임무로하는 미국의 NSA(Natibnal Security Agency:국가안보국—이 기구는 한국전쟁 당시 투루만의 비밀명령으로 세워진 극비정보기관이다. 육군, 해군, 공군 각 정보기관의 상급기관으로 중장이상이 장(長)이 된다)는 박정권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내린 모든 지령을 도청하여 한국내 CIA지부와 일본의 CIA지부로 하여금, 발이 묶이고 바위를 매단채 쾌속정에 실려 망망대해로 실려나가던 김대중을 구출케 한다.

한편 이후락은 북한 방문후 그레그에게 김일성을 만난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인물(guite acharactor)」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레그는 이에 대해 불만에 찬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락에 대한 그레그의 이러한 경험은 김대중납치사건을 계기로 이후락을 제거하도록 했다. 즉 그레그는 경호실장 박종규를 통해 박정희에게 이후락에 대한 불만점을 전달, 미국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이후락을 제거시키게 된다.

1976년 그레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HSIC(House Select Intelligence Committee:하원 정보위원회)에 대해서 CIA측 담당자로 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76년 10월 6일 텍사스대학의 한 강연회에서 그레그는 『만약 박정희대통령이 차기 6년 임기에 다시 도전한다면, 물론 박정희대통령은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마도 그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놀라운 예언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1979년 6월 그레그는 NSC(국가안보회의)의 참모진으로 영입되어 정보를 통제하는 업무를 맡아보다가 후에는 아시아문제 전문가로 활동한다. 10·26사건당시 그레그는 박정희 암살 5일 후인 10월31일, 수십년간 미국통 역할을 담당해온 장우주(전국방부 관리차관보, 예비역 소장,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부터 전두환을 축으로 하는 한국군부의 신세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 이후의 한국정체의 전개과정을 배후에서 주도해갔으며, 지금까지 미국무성과 CIA에 있는 한국통 실무관료들의 총수격으로 군림해오고 있다.

Ⅲ. 그레그의 한국내 인맥

그레그는 CIA한국지부장시절 군부를 비롯한 지배세력과 보수야당내에 많은 한국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그레그의 한국내 측근중 핵심인사이다. 이외에도 그레그는 김상협(전국무총리) 장우주, 백두진(전국회의장), 김정렬(전국방장관·주미대사), 박동진(현주미대사), 박정수(민정당 국회의원),박근(전유엔대사), 김용식(전외무부장관)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김종필의 방미도중 그레그와 김종필이 단독회담을 갖는 등 그레그는 미대사 지명을 계기로 한국 여야정치인과의 접촉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번 부시방한을 성사시킨 배경에도 지난 1월 16일 미국으로 건너간 김복동과 그레그의 접촉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의 정계 및 재계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CSIS (미조지타운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멤버이기도 한 그레그는 지난 1월 23~25일 위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실 H-324호에서 열린 CSIS주최 제6차 한미안보세미나에 미국측 참석자로 참가하여 17명에 달하는 한국측 참석자들과 접촉한 바 있다. 이 세미나는 제5차회의를 일해재단에서 주관·개최하였을 정도로 한국의 친미주의자와 미국내 한국통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미나에 한국측 대표로 참가한 정치인들을 보면 국회의원으로는 박정수, 이태섭, 도영심(이상 민정당), 박실(평민당), 김동영, 정재문(민주당)등이며 정부측 인사로는 법제처장 현홍주, 청와대 경제비서관 구본영등이 있었다고 한다.

Ⅳ. 미국의 한국지배기구

미국에 의한 대한지배의 산실과 통로는 대체로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독점자본→미행정부(백악관·NSC→국무성·국방성·CIA)→한국파견 미국기관(미대사관·주한미군·CIA한국지부)→한국정권(청와대→군부·안기부·보수야당)→한국민중

실질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정보와 힘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CIA한국지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이다. 미대사관은 CIA한국지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비해 그 영향력이 뒤떨어지지만 이른바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미국을 선전해내고 전통적으로 대한 정책에 대한 「신사적 개입」으로 미국의 정책집행관들의 위장된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한미대사관과 CIA를 중심으로 미 대한정책집행기구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주한미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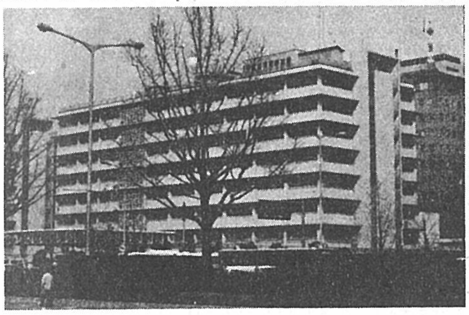
서울 한복판 정부종합청사와 마주본채, 성조기가 높다랗게 올려진 세종로 82번지 8층건물의 미대사관, 그 위치 때문인지 마치 한국정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1백4십여개 대사관 가운데 서울의 대사관은 2급정도로 꼽히고 있지만 그 정치적 비중과 공관 직원수 및 기구의 규모면에서 실질적으로는 1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88년 말 현재 한국 외무부 외교관 명부에 등록된 미국외교관은 모두 90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공식명단 이른바 백색명단이고 정보활동·통신활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한미대사관의 기구는 정치·경제·행정·영사·문화원·상무·CIA지부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사논평」을 한국전역의 대학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 건물7층에는 청와대등 주요기관을 도청하는 무전실을 두고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정치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정치·문화원·CIA지부 등 세부문을 들 수 있다.

정치과는 야당인사와의 접촉 및 막후공작, 청와대·군부에 대한 지원과 압력 심지어는 종교계 인사, 학생운동 대표자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정치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원(USIS)은 형식상 미대사관과는 약간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업무는 대사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문화원이 자신의 공식목적을 ▲미국의 사회·문화·가치관에 대한 외국의 지식증진 ▲미국의 정책에대한외국여론의 수집파악 및 본국정부에의 건의 ▲미국의 목표 및 정책을 왜곡 또는 좌절시키려는 적대적 시도에 대한 대항 등으로 표방하고 있는데서도 보이는 것처럼 제국주의적 양키문화의 이식, 숭미사대주의의 전파가 문화원의 기본 역할임을 섭사리 알수 있다.



▲서울 세종로 82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미대사관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치공작지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미국의 저강도전쟁 전략에 따른 노태우정권사수, 친미 반공연합 구축위해 미대사관과 CIA공작 급격 강화

미대사관은 그밖에도 미국정부초청 시찰계획에 따라 한국의 정치인·언론인등이 미국을 시찰하도록 제반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사관은 한·미교육위원단을 지원하고 있다. 1960년에 생긴 이 위원단을 통해 그동안 6백96명의 한국인사와 4백27명의 미국인사들이 「상호교류교육」을 받아 지금은 각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단장직을 맡고 있는 캐리어씨는 이 교환방문이 한국의 대미문화종속을 결과했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한 바 있다.

이처럼 미대사관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주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내정간섭을 수행해온 것이다.

2) CIA한국지부

CIA한국지부는 주한미대사관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부서로서 형식상 대사관에 편제되어 있지만, 미국에 있는 CIA본부의 직접적 지휘와 통제를 받는 독자적인 조직이다. CIA한국지부는 미대사관 5층에 위치하며 RU(Research Unit)라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있다. 지부요원은 미국회사의 상사원, 평화봉사단원, 미문화원 직원, 외신기자 등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대사관의 정치과 무관실에 근무한다.

본래 CIA의 제3세계 공작의 주요 내용은 ①NSA의 전자도청장치와 그물망 같은 첩보조직을 동원한 정보수집 ②현지에 CIA의 파트너로서 KCIA(한국중앙정보부)와 같은 정보조직 설치·친미화와 이를 통한 첩보·고문기술의 전파 ③극우테러조직의 결성과 제3세계의 애국자들에 대한 암살·테러공작 ④비우호적, 내지는 미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더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진 정권의 전복교체공작 등을 들 수 있다.

CIA한국지부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수립에 필요한 단순정보수집이라는 공식적 임무에도 불구하고 CIA한국지부는 4·19, 5·16, 유신선포, 김대중납치, 박정희암살, 12·12, 광주항쟁, 6월항쟁 등 한국현대사의 격변기에 청와대도 자유자재로 도청할수 있는 막강한 정보력과 수많은 첩보원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독재권력의 생명줄을 쥐고 한국정치의 실질적 연출자로서 활약해왔음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86년 릴리의 주한미대사 취임으로 미대사관의 CIA일색으로 장식되기 전까지만해도 역대 CIA지부장은 대사(부대사)미문화원장 다음의 공식서열 4위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넘어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미국의 현지지배자로 군림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승만 퇴진과 5·16쿠데타를 배후조종한 CIA2대지부장 실버의 경우나 10·26과 12·12쿠데타에 이르는 과정에서 10대지부장 부루스터에 이르는 과정에서 10대지부장 부루스터와 CIA본부간부들이 미대사관(즉 미국무성)과 주한미사령관(즉 국방성)을 압도하고 국면을 주도해간 점만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3) 미 현지지배기관의 새로운 재편

그러나 이러한 미현지지배기관내의 역할은 80년대 들어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로는①CIA지부가혼자 정치공작과 정보활동을 담당할 수 없을 만큼 민중역량이 강화되고 한국사회가 복잡해짐 ②CIA지부, 대사관, 주한미군 등 현지지배기관의 통일성 부족으로 5·17, 12·12와 같은 격변기에 각 기관 사이의 마찰과 대립이 증대되어감 ③전형적인 문관으로 대학교수출신인 워커대사시절 전정권과의 관계는 보다 강화되었으나 민중내부의 높아가는 반미기운을 저지하지 못함 ④레이건집권 2기부터 시도된, 식민지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된 정치·경제·심리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까지 포함 전사회의 가용부분을 모두 무기화한다는 전략 즉 저강도 전쟁전략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레그는 전두환을 축으로 하는 한국군부 신세력의 정보를 입수, 이후 한반도 정치의 전개과정을 배후에서 주도해 왔다.

이러한 결과 미국은 주한미대사관 자체를 CIA중심으로 확대재편성, 미 현지지배기관내 통합성을 강화 하기에 이르렀고 그 역할도 정보수집과 비밀공작수행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급기야는 요인암살이나 정부전복으로 소란한 가운데 미 CIA의 추악한 음모가 맹위를 떨쳤던 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 등지에서 거물급 CIA맨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릴리를 86년 10월6일 미대사로 임명하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릴리의 예일대 동창생이자 필리핀 CIA지부장으로서 마르코스 축출공작을 화려하게 연출했던 존·스타인을 CIA제13대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86년 미대사관을 비롯한 미국의 현지 지배기구는 릴리를 두목으로 CIA지부를 중추로 하여 총력정보공작체제로 돌입한다. 그들에게 부과된 첫 임무는 86년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두환과 육사 17기가 주동이 된 친위쿠데타의 저지였다. 좌경·용공매도와 탄압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쿠데타가 구체화되던 그시기에 릴리는 보안사령관, 안기부장, 청와대 측근, 이민우를 비롯한 보수야당정객과의 정력적인 연쇄접촉을 시도하여 쿠데타를 저지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친위쿠데타는 반대하였지만,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은 극력 고무하였다.

87년 6·10 고문조작규탄대회가 전국적시위로 파급되고 4·13호헌조치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열기가 고양되자 86년이후 3백명 이상으로 증가된 CIA지부요원과 주한미공군 SR-71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을 동원해 한국의 시위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하면서 미국은 그들의 개량화카드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6월17일 최루탄 추방대회를 기점으로 시위가 절정에 달하자 전두환은 부대이동명령을 하달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에 고무받은 김복동, 정호용 등은 군수뇌부를 규합 노태우에게 지지를 모으게 했다. 이날 릴리는 군부개입에 반대하는 레이건의 편지를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한다.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마침내 전두환은 굴복하고 부대이동명령을 철회하게 된다. 6월 29일 노태우는 직선제수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만적 선언을 발표한다.

이로써 미군은 한국민중을 상대로한 저강도 전쟁에서 일시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Ⅴ. 그레그의 취임 무엇을 의미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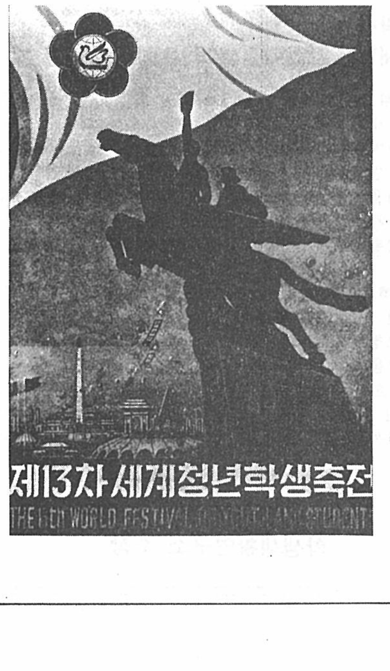
베이커 국무장관과 존타워와 함께 「마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코우크로프트 안보보좌관은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터널의 끝에 빛이 비치는지 모르나 그것이 햇빛인지 아니면 돌진해오는 기관차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냐에 달렸다』며 비유적인 표현을 구사하면서 부시의 대외정책의 기본자세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전국무차관보 아미지를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에, 전주한미대사 릴리를 주중국대사에, 아마코스트를 주일본대사에 임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CIA국장출신 부시의 아시아인맥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CIA등 정보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첩보전문가들이다. 그레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시 대외정책의 전반적 기조와 함께 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한국민중의 광범한 반미·통일의식 고양과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 속에서 노태우정권이 궁지에 몰림에 따라, 미국은 저강도전쟁 전략에 따른 친미·반공적 보수대연합구축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화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CIA의 비밀공작 활동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비밀공작의 베테랑이자 한국지배세력과 보수야당내에 뿌리깊은 인맥을 갖고 있는 그레그를 부시가 미대사로 파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미대사관 자체를 CIA중심으로 재편·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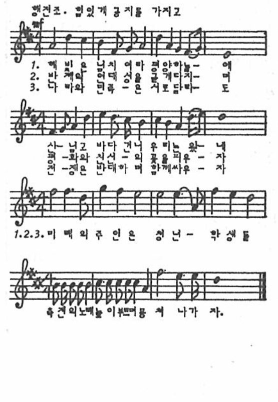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릴리가 한국을 떠나기전 김종필과 만나 『내년(올해)봄쯤에는 한국에서 좌우충돌이 예상되는데 좌익은 결집력이 강해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전선을 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다음 이에 맞서기 위해 『보수세력들의 단결된 대응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3월 15일 총무처장관 김용갑 역시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중간평가의 기회를 정국전환의 계기로 삼아 국가를 좌경화의 위험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 정국의 성격과 그레그 취임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결국 친미·반공적 보수대연합의 결성과 반미를 외치는 민족민주운동의 탄압이 바로 부시 대한지배정책의 핵심인 것이며, 신임 주한미대사가 될 그레그의 CIA특공대가 수렁에 빠진 노태우를 건져내고 점령하려 하는 고지인 것이다.

“평양은 벗들을 환영합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THE 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미래의 주인은 청년학생들


행진조. 힘있게 긍지를 가지고
1.2.3. 미래의 주인은 청년- 학생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올 7월1일부터 여드레간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이념을 내걸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열린다.

세계 1백70여개국의 2만여 청년학생이 참가하는 이 축전은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아름다운 희망과 이상, 그리고 평화와 자주를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게 되며 「미래의 주인은 청년학생들」이라는 축전 주제가를 합창하게 된다.

외 대 학 보

마당극 운동의 경향과 성과

——민족극운동의 현단계〈상〉

이영미

〈연극평론가〉

노동자적 리얼리티 구현과 건실한 민중성 확보통해 일상적 삶속에서의 역동성· 민중적 낙관성 담보

I. 머리말

박종철열사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6월 민주화투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진 87년은 80년대 변혁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아울러 연극운동 진영에 있어서도 뚜렷한 발전을 보인 전환기이기도 하다. 80년대 초·중반기에 극심하게 드러났던 연극운동의 퇴행현상이 극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87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의 마당극 운동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작품적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극운동의 현재의 경향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먼저 87년 이전의 경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II. 80년대 전반기 연극운동의 퇴행현상

60년대 중반 김지하, 조동일등 4·19세대의 민족예술부흥운동과 창작극, 리얼리즘에 대한 관심은 70년대에 전국 각지에 생긴 탈춤반을 중심으로 보다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70년대 초반기의 활동성과는 후반기에 이르러 마당극이라는 새로운 연극적 결실을 맺게 된다.

당시의 마당극의 형성은 단지 연극예술에 대한 관심에 의해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신시대의 한복판에서 변혁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다.

즉 마당극이라는 연극양식은 전통탈춤의 원리와 서구로부터 들어온 여러 무대극양식을 결합한 것이 아니다. 그 양식과 연극적 관행은 당시 변혁운동의 구체적 계기속에서 실천적 실험을 통해 형성된다. 마당극은 70년대의 유일한 리얼리즘연극의 맥이었고, 그 리얼리즘정신은 구체적인 사회적 현실속에서 실천적으로 부딪치면서 생겨난 것이다.

70년대 후반기에 생성된 마당극양식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극도의 억압기를 맞으면서 퇴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나, 마당극이 해냈던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가에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연행된 대학마당극은 70년대의 리얼리즘 정신이 충만한 마당극이 아니었다. 80년대 전반기의 대학마당극(당시 정치상황에서 마당극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장소는 대학뿐이었다. 대학가에서 공연된 작품이 마당극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은 대학생들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관념성과 도식성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양키·쪽발이·군부·재벌, 그리고 흰 옷 입은 민중등 대학생들의 사회과학적 관념의 의인화로 만들어진 인물들은 도식적인 대사에 재담을 섞어 주고 받다가 당위적으로 승리·패배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70년대의 모범적인 마당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시기 대학마당극의 극도의 관념성과 도식성은 민중과의 실천적 만남이나 실천을 통한 현실의 생생한 확인이 불가능했던 80년대 전반기 사회상황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성과 도식성은 85, 86년에 극에 달한다. 대학마당극은 알맹이 없는 억지신명, 억지풍자, 말장난으로만 흐르고 있었고, 점차 관객으로부터도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또한 84년부터 시작된 유화 국면은 억압기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인식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극은 좀체로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당시의 대학마당극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일어났으나, 이 역시 마당극의 퇴행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시원스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한편에서는 마당극의 퇴행현상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마당극의 본질적인 한계가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

III. 노동연극의 정립—새로운 발전

80년대 초·중반기의 마당극의 일시적 퇴행현상이 극복된 것은 87년 전문연극운동집단의 노동연극으로부터이다.

▲마당극은 노동자관중의 집단성·자발성을 보장하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동성있게 공연하는데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구체적인 노동대중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동권극으로부터 마당극의 퇴행현상이 극복된 것이다.

이는 마당극운동·연극운동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연극운동 담당자는 작품창작이나 공연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하게되고, 노동대중의 성장,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도에 따라 작품을 생산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눈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사회현실을 연출해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동연극에서 80년대 전반기의 도식성·유형성·관념성·양식주의등 제반 소시민적 퇴행현상들이 극복된다. 마당극의 양식과 표현법은 건실한 민중성과 결합함으로써 그 리얼리즘적 특성과 민중적 낙관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노동연극의 구체적인 작품과 생산배경은 다음과 같다.

87년 봄, 즉 6월 민주화투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있기전의 상황에서 노동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단위 사업장내에서 초보적인 교육이나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활동을 할만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현장외곽의 일상적인 문화공간에서 미조직 노동자에게 초보적인 노동자의식을 가질수 있게하는 정기적인 집회가 요구되었고, 일상적 문화집회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소품이 「쇳물처럼」(극단 천지연)과 「어떤 생일날」(놀이패 한두레)이었다.

그 후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시작되고 노동단체주최의 노동자집회가 늘어나면서 집회용 작품이 요구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문화부는 놀이패 「한두레」등 전문연극운동집단의 지원을 받아 노동투쟁사례를 극화한 「우리 승리하리라」(이리 후레아패션사례) 「막장을 간다」(삼척정암탄좌 가족투쟁사례)등의 작품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88년 들어서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연극에 대한 노동현장의 요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를 담당하기 위해 노동연극 전문극단으로 극단 「현장」이 창단되어 임금투쟁용 교육극인 「횃불」, 노동자문화제용 작품인 「노동의 새벽」,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만든 「껍데기를 벗고서」, 콘트롤데이타사례를 극화한 농성장·집회용 작품인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냐」등을 공연하였다. 또한 놀이패 「한두레」도 우여곡절끝에 노동연극창작을 극단의 주요한 임무로 결정하고 「우리공장 이야기」「아버지의 행군」을 공연하였다.

이러한 전문연극운동집단의 노동운동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연극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이미 막이오른 「제2회민족극한마당」에서 전체 작품의 1/3이 노동연극이라는 점은 이를 시사한다.

앞에서 열거한 작품은 모두 구체적인 노동자대중을 그 관객대상으로 삼고있고, 87년의 작품은 작품당 5~10회, 88년의 작품들은 작품당 30~40회의 노동현장순회공연을 하였다. 노동자 대중집회장, 공단의 문화공간, 단위사업장, 파업농성장, 노조수련회장, 기념대회장등 그 이전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다종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연극운동의 중심은 중간계급·지식인 관객 중심에서 생산대중 관객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여 가고 있다.

전문 연극운동집단들은 노동자대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소시민성을 극복하고 있다. 연극운동의 발전이란 연극의 관성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천적으로 생산대중의 변혁운동에 봉사하고, 생산대중을 도와 올바른 노동자문화·농민문화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87·88년은 바로 생산대중의 성장속에서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된 해라고 할 수 있다.

IV. 작품경향

이들 작품은 양식의 측면에서 볼때 거의 모든 작품이 마당극 양식이다. 노동자 관중의 집단성·재발성·낙관성을 보장하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동성 있게 공연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양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연극은 노동자적 리얼리티를 확보하였다. 살아있는 노동자의 모습, 노동자가 보아도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공감할수 있는 인물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노동연극의 기본적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즉 이들 작품은 노동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한 왜곡이나 지나친 영웅화가 없고, 일상적 삶속에서의 역동성과 낙관성·투쟁성속의 일상성을 구현해내고 있다. 또한 집단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그려내면서도 개별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있다. 그 외에 대사의 문제, 행동, 표현법등에 있어서도 노동자적 리얼리티 확립이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87년이후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온 노동연극의 흐름은 명실공히 현단계 민족극운동의 중심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노동연극의 성과가 중간계급·지식인·학생들의 연극문화에 충분히 확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학연극이 80년대 전반의 퇴행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일로를 걷고 있거나, 중간계급 대상의 극장공연들이 활동공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역시 큰맥락에서 보자면, 연극운동의 중심이 노동연극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부분의 과도적 침체라 할 수 있다. 민중주체의 변혁운동에 실천적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퇴행할 수밖에 없음이 또한번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극은 짧은기간 동안 크게 성장했으나, 노동운동의 요구에 비하자면 아직도 양적으로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질적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이룩한 노동자적 리얼리티 확보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실천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것도 없다.

아빠! 힘내세요
을시민의
시민문

문화 기상도

「시민문화예술한마당」이 서울노동자문화예술활동위원회 주최로 지난 14일(화) 오후6시 지하철 시청역 대합실에서 열렸다.

지하철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하철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서울시민등 약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극단 「현장」의 마당극 「노동의 새벽」과 서울시민과 지하철노동조합의 공동승리를 위한 「노래 한마당」, 「춤 한마당」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전경들의 행사방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협조적인 관람태도와 참여, 연기자들의 열의속에서 감동적으로 치루어진 이번 공연은 노동운동에 대한 문화예술운동의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글:한정일기자 사진:한성원기자〉

모자의 힘찬 각오, 굳센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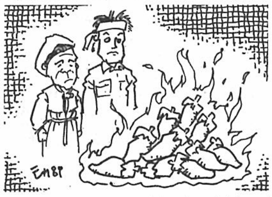
◇홍희담의 「이제금 저 달이」를 읽고

이미 「깃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주출신 여성작가 홍희담이 중편 「이제금 저 달이」(「사상운동」, 89년 창간호)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지난달에 여의도 농민시위로 우리사회의 전면에 부각된 농촌문제를 노농동맹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소설은 농촌출신의 선진노동자 광한이 민주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농성, 구사대폭력, 공권력의 탄압, 부당해고, 출근투쟁, 동료 영길의 구사대폭력에 의한 죽음, 절망, 거액을 제시하는 회사측의 회유에 대한 단호한 거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씨실로 하고있다. 농촌에 몸담고 있는 어머니 벌교댁이 광한의 노동운동 가담에 큰 불만을 느끼며 갈등하다가 자신의 삶에 밀려온 농산물의 순환적 가격파동의 일환인 고추값폭락을 계기로 차각되어 아들 광한과의 의식의 편차를 극복하고 함께 싸우게 되는 과정을 날실로 삼아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

소설의 전반부는 대단히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로 일관된다. 광한이 구사대폭력으로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이나, 「어머니 속에 우리의 적이 있음」에 괴로워 하는 것, 영길의 죽음과 광주항쟁의 말미에서 숨져간 친구 홍비호의 죽음이 대비되는 것 모두가 승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착취·탄압·울분을 담은 패배의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마치 박노해의 시적 구조처럼 극적으로 역전된다. 광한은 동료의 죽음앞에 좌절하지 않고, 회사측의 거액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현장 노동자인 기태가 함께 싸울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노동자의 감동적인 계급의지를 표출한다. 광한은 광주항쟁 당시에 굵은 소나무 밑에 파묻어놓은 두 정의 총을 다시 꺼내 들고 아직은 그런 날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으나 「총을 품은 가슴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장면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의지를 암시하는 이 작품의 압권이다.



벌교댁과 광한은 농민과 노동자 계급을 표상하며, 모순된 현실 개조를 위해 「함께 걷는 먼길」을 출발한다.

한편 벌교댁은 아들 광한을 찾아가 『누가 해주지 않는당께 우리들이 나서서 해야제』라는 말을 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옭아매었던 굴종과 안일과 이기주의를 깨부수고 당당히 각성된 농민의 주체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영화에서의 카메라 워크에 준하는 능란한 장면배치에 힘입어 작품의 끝맺음은 극적으로 반전되고 기본계급의 보다 진보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벌교댁과 광한은 각 계급의 전형을 표상하며 모순된 현실의 개조를 위한 「함께 걷는 먼 길」을 출발한 것이다.

이 소설은 그간 소설문학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어 온 당면 변혁과제에 대한 「발빠른 기동성」을 모범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소설문학이 지나간 과거의 담지자로써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관한 올바른 전망도 동시에 담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니는 또 하나의 미덕이다.

이미 김남일의 「다시 서는 땅」에서 그 단초가 보였던 노농동맹의 소설화는 이 소설에서 한결 현실적이고도 미래적 전망을 포괄하며 제시된다. 이 소설이 고추값파동을 소재로 삼고있는 이면에는 주된 극복대상으로 내외독점자본을 설정하고 가격문제를 노농동맹의 고리로서 제시한다는 작가의 관점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농업문제와 노동문제의 해결을 근본적 생산양식의 변화 속에서 찾을 때 농산물 가격문제는 노농동맹의 현실적 매개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이 작품은 이에 상응하는 노농동맹의 매개 고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작가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다. 설령 작품의 본래 창작의도가 형상화단계에서 관철되고 있지 못한 것을 작가 스스로가 간과했더라도 현상되고 있지 못한 노농동맹의 모습을 그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광한의 노동투쟁과 벌교댁의 농민시위 참가가 개별적으로 독립되게 처리됨으로써 상호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민중문학은 이 소설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반성하고 노동문학의 공식화된 정형, 농민문학의 현실과의 괴리를 딛고 농촌과 노동현장에 현상하는 제모순이 우리의 사회성격으로부터 규정되고 있음을 총체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형상화해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강석환

〈서양·서반아어4〉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1. 상담 및 심리치료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개인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성문제·교우문제·가족관계 및 성격·대인관계·불안성향·신경증 등 개인의 삶에서 갖는 심리적 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신청실(212호)
＊담당교수—심리상담: 서병완, 정영윤 교수. 유학상담: 박기덕 교수

2. 심리검사

각종심리검사도구(지능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흥미검사, 자아개념 등…)가 비치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과 해석에 따른 상담도 실시합니다.

＊심리검사 이용시간
지능 및 적성: 화, 목 7교시
인성, 흥미, 자아개념, 자아실현검사: 월·금 7교시

3. 자료실

자료실은 취업, 유학, 대학원 등 개인의 진로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와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비치하여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대학 대학원 모집요강 및 실전문제
- 회사연감, 리쿠르트, 종합언론고시
- 해외 유학 종합 가이드, 국내외 유학 안내서 등 다수

＊자료실 이용시간
매주: 화·수·목·금(10:00~17:00)

4. 자기성장과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개인의 삶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아개발 및 자아실현프로그램으로써 함께모여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의 상호 이해 경험을 가지면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관계 기술의 습득 및 자신의 긍정적인 잠재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자아실현 경험의 장을 마련합니다.

＊장소: 이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용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교대 사용)
＊기간: 1989.3.22부터 매주 수요일 7.8교시 총8회 실시(시험기간제외)
담당교수: 서병완, 정영윤 교수
＊신청기간: 3.21(화)까지 각 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신청실

5.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집단토의 및 상담

대학생활에서 갖는 여러가지 문제중 관심분야를 선정하여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정보와 기치를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자아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토의 및 상담 주제
- 복수전공의 이해와 전망
- 대인관계의 문제점과 향상방안
- 이성교제의 의의와 문제 및 대처방안
- 해외유학의 의의와 전망 및 절차
- 학습습관 진단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모색
- 性의 정신분석
-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담당: 서병완, 정영윤, 박기덕 교수 및 관계 전문가
＊일시 및 장소: 3월넷째주 부터 중간시험 기간 2주를 제외하고 5월말까지 매주 실시하며, 이문 캠퍼스는 목요일 7.8교시, 용인캠퍼스는 화요일 7.8교시에 각 캠퍼스 별로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학교신문과 공고를 통하여 통지됩니다. 많은 관심있기 바랍니다.

학 생 생 활 연 구 소

대학장학생(신입생)모집

(학군·학사사관)

·모집인원: ○○○○명
·지원자격: 4년제대학 신입생('69.1.1~'73.1.1출생자)
·지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89.2.22~3.25(학군단본부)
 ·구비서류

1 차 (지원시)	
·지원서및 서약서	1부
·대학입학 성적증명서	1부
·사　진(4×5cm)	1매
2 차 (신검검사시)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	각2부
·재정보증서·납세및인감증명서	각1부
·사　진(4×5cm)	3매

·선발절차
 ·1 차: 서류전형 (입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 차: 신체검사
·합격자발표: '89. 7. 3.
·특　전
 ·학군 및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자동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지급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및 처우)
 ※문의처: 학군단 행정실
 962-7124, 965-7001(교)2412.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19학생군사교육단

수 강 생 모 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영어과(2개반) 50명, 일본어과(2개반) 50명
2. **교육일정**
 1)기간: 1989. 5. 1. —1989. 7.21. (12주교육)
 2)교육시수: 1일 3시간 (18:30—21:20)
 3)주당일수: 5일 (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시험과목:** 지망학과 외국어 필기시험
5. **제출서류:** 소정원서 및 사진1매
6. **원서교부·접수:** 1989. 3. 6. —1989. 3. 18.
7. **전형료:** 6,500원
8. **전형일시:** 1989. 3. 25(토) 14:00 외국어연수원
9. **합격자발표:** 1989.3. 31(금) 14:00 외국어연수원
10. **수 강 료:** 162,000원 (월 54,000원상당) 일시납
11. **등록기간:** 1989. 3. 31(금)—1989. 4. 8(금) 외국어연수원
12. **기　타**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년3회 실시함.

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따라 모집학과의 조정이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연수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직통) 962—7119, (교환) 2174.

1989년 2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올해 발전계획안을 점검한다

장·단기계획 구체화작업 필요

작년 학민약속조항 점검과 함께 올계획안 현실화해야

보도기획

(본보 508호에서 이어짐)

4. 단기발전계획 (1989)

단기계획은 1년을 단위로 만드는 기본운영계획으로 계획내용이 구체적이며 수행과정상 거의 변동이 없는 계획이다. 중기계획과 마찬가지로 학사, 조직, 시설 및 공간, 건설 복지등 5개분야로 세분되어있는 단기계획은 장기, 중기계획안을 보다 현실화하고 당해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발전계획이란 면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학원민주과정에서 보아왔듯이 학민약속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과 철두철미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성과없는 공허한 악순환으로 전락되어왔던 오류를 생각할 때 학민사안의 점검도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올해 단기발전계획안의 분석과 함께 작년 서울, 용인 학원민주약속사항에 대한 진척사항 및 올해 새롭게 제기될 학원민주복지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짚어 볼까 한다.

① 학사

학과의 증과, 증원은 문교부의 수도권동결정책에 따라 용인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학도입과 관련된 학제개편문제는 올1학기까지 설문조사, 공청회등을 통해 확정한다고 되어있다. 학교측 입장은 학생과 교수의 여론이 공히 단대명칭변경에 의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쪽으로 모아지면 그것을 기초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문교부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학문제는 중복학과 철폐, 독자적인 학문영역확보등 양캠퍼스의 대등한 발전이란 면에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학교측은 현재의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커리큘럼 지역학과목추가, 지역학에 대한 학교·학생대표 상설기구건설, 지역한 연구소개설등이 단기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다.

교과과정은 교과과정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88년 11월에 구성되어 90학년도부터 적용할 교과과정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89년도 1학기까지 개편시안을 완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교과과정개편특위는 교수들만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으며 그 범위도 국책교양과목, 부전공등으로 국한되어있는 형편이다.

교과과정은 대학내의 학문·사상자유의 쟁취라는면에서도 학생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교과과정개편에는 서울·용인 각단대, 교수·학생동수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교과목개편 및 구조가 보장되어야 하겠다.

또한 상시적으로 교과과정과 진보적 학문을 연구할 조직이 시급히 ―올해안에―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행정 민주화의 근간에 될 수 있는 학칙은 크게▲목적▲학사 및 학생활동 변경사항▲교수회의 성격변화등이 수정·보완되었다.

개정안을 보면 재학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현행 제6조) 휴학은 1회1학기로(현행 23조)그리고 학업성적평가에 따른 제적조항은 삭제되었다.(현행 제26조 2호)

② 조직

대학의 행정조직이 연구, 지식전수및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기능을 지원, 보조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볼 때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규모에 있어서는 타대학에 비해 그렇게 비대하지는 않지만 행정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부서간 연계부족, 전문성미비, 인사운영(승진, 배치전환등)의 무원칙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교 조직의 문제점으로 ▲학교수업및 연구활동을 위한 투자미흡▲전문적 인사관리 부재▲행정직원에 대한 동기유발 정책미흡등을 들고 있다.

이에대해 올해 단기발전계획에서는 조직을 조직개편, 업무의 분권화, 관리의 전문화등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야간강좌 통폐합 및 분할모집, 부실간 인원조정(감원·충원), 여학생감 폐지, 과다업무의 분산등이다.

이에따라 인원이 부족한 학생처, 기획조정처, 홍보부및 전자계산소등은 충원하며 단과대학교수실, 시청각교육원, 용인교무처 등은 감원한다고 되어있어있다. 건설부는 학교시설및 건설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총장직속기관으로 개편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조직문제는 현재 직원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난항을 거듭할것으로 보이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임시방편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일례로 주·야간통합 이후를 고려하지 않아 현재 인원초과, 강의실공간부족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본보 509호, 3월14일자)

조직분야에서 서울·용인의 균등한 역할설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지 작년 학민약속조항의 하나인 형식상의 서울캠퍼스부총장만 임명됐다고 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누차 지속되어온 학사행정의 서울종속화, 부설연구소의 서울편중으로 인한 학문풍토미흡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③ 시설 및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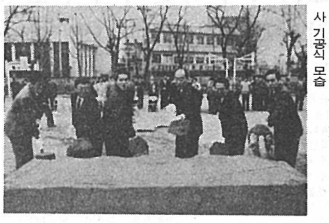
대학내의 시설과 공간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및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단기발전계획을 보면 중앙도서관4층의 박물과 자리를 용인으로 이전 약4백석규모의 좌석을 확보하고 사운드라이브러리는 12석을 증설하고 노후기재는 올1학기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강좌폐지와 교련및 군사교육폐지로 남는 공간은 강의실, 교수연구실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허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고시실은 공간확장이 아닌 이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군단 건물은 복지관, 소비조합, 여행사등으로 구성된 후생복지관으로, 야간학과장실과 과룸은 교수연구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기를 원해 이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발전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중 휴식공간이 부재한 용인캠퍼스의 경우 교양학관, 인문·사회관등의 휴게실을 개조하여 휴게실기능을 다양화해야하며 서울캠퍼스도 부실한 대강당의 조명, 의자, 무대등을 보완 대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24일(화) 서울캠퍼스 재배치공사 기공식 모습

④ 건설

신축 및 구조변경, 조경등으로 나누어 진행될 건설분야는 올해 7월에 용인캠퍼스 도서관이 착공되고 서울캠퍼스에 교문이전, 운동장 구조변경, 노천극장건축등 재배채공사가 진행된다.

허나 이 역시도 사전준비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캠퍼스 복지위원장 한주현군(일어4)은 『재배치공사가 집중점을 형성치 못하고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진행돼 소음, 먼지칸막이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등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활동할 공간도 없는 상태』라며 『단순히 학생들의 요구에 의한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가 아닌 진정 외대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캠퍼스 조경부분은 어문학관앞, 사회대앞 파고라설치, 명수당주변 벤치설치및 식목, 테니스장 주변 휴식공간화, 문리대주변 식수등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에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고 판단 대운동장건설및 보조경기장을 겸한 노천극장 건설도 건의하고 있다.(학민자주화 백서참조)

⑤ 복지

현재 용인캠퍼스 복지시설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은 지입제버스증차, 운행회수 증회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배차시간표 설치, 셔틀버스(모현―학교)증회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은 신입생입학에 따른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급한 새노선개발도 언급조차 안돼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단기발전계획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토·일요일 및 방학중 학교의 공동화현상을 막기위한 학교버스 정기적 배차등의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식당은 1차개선사업으로 식기건조기, 세척대, 컨베이어벨트등 주방시설의 수리및 교체가 완료됐으며 미비한 주방시설의 보안은 89년 8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 작년 학민약속조항의 하나인 자판기 직영은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당이 보완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개인임대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의 학생수에 비해 비좁은 공간의 문제는 언급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으로 단기발전계획을 살펴보았지만 전반적으로 불충분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계획이 중·장기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볼때 임시방편적인 기획이 아닌 거시적관점에서 구체적·현실적 계획을 추진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발전계획은 학교측과 직원노조, 총학생회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삼자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인 듯 싶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미약하게나마 장·단기발전계획에 대해 점검해보았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부분이며 전문지식의 부재라는 한계성때문에 뚜렷한 방향제시를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마스터플랜하의 8년기간은 단지 「재단의 희망사항」에 대한 외대생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이었으며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단기발전계획의 구체화 현실화 작업과 대학의 전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는 논의의 장(場)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럴때만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고 학생과 학교가 협력하여 「2천년대 외대」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강병준기자〉

흡산의 소리

학생총회 무관심속에 열려 주인이라는 주체의식 요구돼

차가운 왕산바람을 맞으며 지난 14일 명수당 잔디밭에서 제10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거행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과 깃발을 앞세우고 참석해 총학의 출범을 기대속에 바라보았다.

그러나 출범식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기학생총회가 열리는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였다. 결국 2백여명의 학생만이 남은 가운데 총회는 치뤄졌고 정족수 미달로 어느 사항도 의결하지 못한채 토론만 진행되었다.

왕산에 입학한지 이제1년이 좀 넘었다.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불편과 이로인해 대학문화 섭취도 큰 제약을 받았다. 열악한 복지실태로 불편한점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왕산의 주인이다. 주체적으로 왕산을 일구겠다는 우리의 주인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투철한 각오와 뛰어난 총학도, 아무리 풍족한 학교의 지원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이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를 왕산인 모두에게 다시한번 주장하고 싶다.〈서문·독어2 유상원〉

직원노조 전면파업 지지·관심 가졌으면

요사이 학교가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 캠퍼스는 온통 파헤쳐져 있고 직원노조들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난데없는 찬바람은 모든 외대인을 얼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조의 파업으로 겪는 불편도 많다. 하지만, 그걸 얘기하자는게 아니다. 우리모두가 하나의 울타리안에 묶여있는 이상 이렇게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붉은조끼를 입고 깃발을 움켜진 노조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적어도 그들에게 암묵적동의라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학교는 학교측의 입장만 내세우고 노조는 노조대로, 학생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나가 되어굴러야할 학교는 어떻게 될것인가.

학교측은 좀도 성의있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며 총학도 단순히 학생복지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좀더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외대안에서 너와 내가 있을수는 없다.

〈동양·인도어2 염철〉

입학식 폐지부당 내년부터 부활해야

내용성없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명목하에 입학식 폐지가 공식화되었다. 같은 이유인지는 모르나 졸업식마저 분산적으로 치뤄진후 88년도 학사 일정이 마감되었다.

유치원에서조차 입학식과 졸업식이 치뤄지고 있으며 한 과정을 시작하는 곳이든 마치는 곳이든 꼭 있어야하는 행사로 입학식과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통치자가 5공의 정치적인 사실규명에 노력없이 중간평가로 혼미한 상태를 마무리하려는 발상과 맥을 같이해서 간혹 입학식때 빚어지는 학생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상명하복식의 정책으로 원인규명해결에 아무런 성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학교당국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 의식 결여 등 외대인 의식문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이번 입학식 폐지 문제에 총학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겠다.

내년에는 미화정리된 교정에서 입학식이 거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동양·태국어3 조한근〉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필요 현실외면말고 관심기울여야

모두들 외롭다고 말을 한다. 넘칠 듯한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마주침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난 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이기주의와 무관심의 표본인 것 같다. 얼마전부터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지만 그 일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겐 본질은 왜곡된 채 현상만이 가볍게 인식되어 질 뿐이다.

올바른 본질 파악을 위한 지적 수준이 못미쳐서가 아니다. 단지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강 후 쟁의에 돌입하여 마침내 전면파업까지 돌입하고만 학내 노조원들의 빨간 조끼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케 하였는가? 지하철 노조 파업은? 각자에게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위의 일들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기울이며 대학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기 이전 혼자가 아니도록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함이 옳다는 것이다.

나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의 결과를 남길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 우리 상상해보자.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범·불교2 황미연〉

바로 여기

전산실을 찾아서

컴퓨터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이론과 실기를 겸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산실은 이외에도 교수들의 연구풍토 조성및 학교 행정원들의 이용으로 학사업무의 행정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전산실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대학원건물 1층에, 용인캠퍼스는 사회과학관 2층과 자연과학관 1층 두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산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초 전산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캠퍼스에선 작년 2학기에 개인용 컴퓨터를 2대에서 40대로 증강하여 높아지는 학생들의 관심도에 조용하고 있고 용인캠퍼스에서도 작년말 자연과학관에만 있던 백스(VAX)컴퓨터(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 선을 사회과학관까지 연결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관 전산실의 경우는 경영정보학과 전산실로 되어있으나 작년 2학기에 개인용 컴퓨터를 2대에서 16대로 늘린후에 타과 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전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산실이 단지 상경대나 자연·사회과학대에만 열려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얻을수 있는 각종 자료나 신속한 과제물 처리등의 편익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생수에 비해 아직도 많은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과제물이 쏟아지는 시기나 시험을 전후로 해서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겪고있다.

이같이 일반학생에게도 전산실을 개방하는데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서울캠퍼스 임남홍 조교는 『학생들의 무책임과 내것이라는 인식부족으로 전산실 통제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질서있게 전산실을 이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용인캠퍼스 전산실 직원 황경엽씨도 『자연과학관에 있는 전산과 전용컴퓨터실에 비해 타과에 개방이 되어있는 사회과학관 전산실에선 일반학생도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기계고장이 빈번한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가 소홀할수밖에 없었다』며 전산실측이 겪고 있는 이중고를 털어놓았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학생들의 전산실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함께 학교당국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기자〉

“외대학보는 신문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매년 3천여명씩 탄생하는 신입흡산들은
각기 대학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찾아갑니다.
이곳 저곳에서 판이한 생활을 하는 외대인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생활하지만 스스로의
삶에만 몰입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에 발을 딛고 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양심에 대한 용기이며
이두가지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외대학보는 이 뜨거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사람을 찾습니다.

외 대 학 보

인터뷰

대화하자! 단결하자! 투쟁하자!

◇강영은 직원노동조합장을 만나

▲피곤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며칠전 도서관 용역화문제는 학교, 학생회의 도서관 용역화 전면철회와 사과해명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직원노동조합(이하직원노조)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네, 도서관 용역문제에 대해 학생회측은 대학공동구성원간의 의견수렴과정결여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였으나, 아직까지 학교측에서는 현존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1월6일 취업규칙및 직원인사규정등 합의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불이행하고 있으며, 2월28일의 노사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제9차 단체교섭에도 불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88년 3월이후 9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학교측은 계속적으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와 저희 노조원들은 3월2일 전면파업결의와 함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두차례에 걸친 알선에도 변함없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3월14일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노사현안문제는 모두가 다 중요하겠으나, 특히 임금인상은 시급한 생존권문제이고 제원의 확보등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안팎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읍니다. 노조측에서는 69%의 임금인상안을 내놓고 있으시다는데…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타대학에 비해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현 교직원처우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아울러 직원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재단의 재산증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원칙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민주적인 제도개혁을 통한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교 직제현황에서 교수들의 행정권은, 다시말해 보직교수는 임기가 2년으로 대학행정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전문성결여, 교수들의 연구시간부족과, 직급부족으로 인한 승진정체에서 배태되는 업무나태유발등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고졸4년 근속자임금은 대졸초임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10년이상 근무해야 대졸초임과 같아집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객관적 인사체계기준을 통한 인사질서확립을 위해 직제개편과 단일호봉제 채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임시촉탁제도등의 무원칙한 정식인사철회를 위한 직원인사위원회 구성도병행되어져야 합니다. 69%는 최저생계비 기본급 계산방식에 의한 임금격차로, 69%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제도개혁과 함께 물가인상등 객관적인 변동요인을 적용한 최저임금재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행정권·교수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등 구성원간의 관계정립가능한 「대학민주발전 추진위원회」구성해야"

▲대학의 발전은 직원·교수·학생등 각 구성원들간의 상호이해와 객관적 의견수렴을 통한 대학정책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교는 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동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조측의 「대학민주발전 추진 위원회」는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용역화문제에서도 절실히 느낄수 있었지만, 대학공동구성원간의 의견수렴결여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대학민주발전 추진 위원회」 구성의 시급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대학민주발전추진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의 상충부분에 대한 해소를 통해서만이 직원의 행정권, 교수의 교육권,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등 구성원들간의 관계정립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측과 10차례의 단체교섭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느끼셨읍니까.

—대학공동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의 결여로 발생했던 도서관 용역화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88년 말까지재정시행했어야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근로조건 평등적용과 퇴직금 지급시 법정평균임금에 의한 지급을 시행하지 않고있는등 위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약속불이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총장과 총무처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퇴진을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10차단체교섭에서 학교측은 퇴직금 법적지급, 남녀고용평등법등 법적구속사항과 대학민주발전추진위원회,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원감소의 내용이 담긴 장·단기 마스터플랜 재검토에만 합의를 하고, 노사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부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은 모든 업무의 마비를 초래하기에 쟁의과정중 마지막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원노조간의 파업은 학교행정의 전면적인 마비를 가져왔으며 이에 학생, 교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대해서 학생·교수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느경우에 있어서나 파업은 신중히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전면파업을 결의하면서, 최소한의 교수·학생들의 불이익을 생각할 때 업무진행을 위한 부분적 파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거한 협정근무자 45명과 함께 학적과·학생과·도서관등 서울·용인 근무자 총 23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업돌입후 하루가 경과해도 학교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가 전혀없어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전면파업의 결과가 행정마비와 농성과정중 꽹과리·구호소리등의 소음으로 인한 본의아닌 수업진행방해에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라는 점에, 교수·학생들의 이해와 양해가 따라주었으면 하며,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니 만큼 연대해 줄것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이제 3월20일의 제11차 단체교섭과 21일 중노위의 제1차 조정중재가 계획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싸움진행에 있어서 결의자세와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직원노조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제 11차 단체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노사현안 문제가 타결되어 정상적인 근무속에서 본교 발전을 위해 학생·교수들과 연대사업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측의 문제해결의 노력이 없을때에는 저희 조합원들은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채 돌도 지나지 않은 본 직원노조는 사업의 전개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굳건한 결속력으로 아직 미약한 학교내의 기반조성을 다져나갈 것이며, 타대학과의 연대투쟁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선행으로 이후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이루어 낼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투쟁에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미숙기자〉

복지장학생 선발

용인, 22일까지 접수

서울·용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89년도 복지장학생 인원을 확정·발표하였다.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복지장학금 내역은 자판기 2천8백만원, 복사기 2백만원, 일반특강 50만원, 자동차특강 50만원등이며 이 수익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오는 3월23일(목)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용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도 오는 3월22일(수)까지 각 단대 학생회실에서 복지 장학생신청·접수를 받는다.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장학생 선발은 영어과에 3명, 불어·독어·서반어과에 각2명, 그외 나머지과에 각1명씩 배당되며 구비서류로 재산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과회장추천서 각1통씩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3월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통량조사요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노정권 퇴진위한 실천대회

"팀스피리트 훈련은 핵전쟁 예행연습"

△지난 3월20일 시위도중 학내에 난입한 전경에 의해 한 학생이 연행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3월20일(월) 오후3시 시계탑앞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 민중생존권 탄압주범 노태우정권 퇴진과 팀스피리트 핵전쟁연습 저지를 위한 애국외대 실천대회」를 열고 투쟁선포문을 통해 『전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려는 허구적인 북방정책, 공권력 확립하에 자행된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테러, 북한동포가 대상인 팀스피리트 핵전쟁 침략훈련등을 자행하는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에 전력하자』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백여명의 학생들은 진입로에서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이 4번이나 학내에 난입, 이 과정에서 김희중군(정과·행정2)연행되기도 했다.

용인 제6대 학연장 내일 선거

오늘 오후 입후보자 정견발표예정

용인캠퍼스 제6대 학회연합회장 선거가 오는 3월22일(수) 실시되며 선거유세는 오늘(21일)과 내일 오후5시30분 학연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선거는 지난 3월15·16일(목) 양일간 접수된 후보자 등록결과 제5대 학연 기획부장을 역임했던 조현식군(서문·독일어4)이 단독 입후보해 각과 학회장(총31명)이 모인가운데 찬·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 유창환 노제거행

지난 3월16일(목) 오전10시 서울캠퍼스 교문앞에서 지난13일(화)이문파출소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변을 당한 본교 고(故)유창환군(동양·중국어 84학번)의 노제가 치뤄졌다.

서울「가면극연구회」

탈춤강습회 열려

서울캠퍼스 「가면극연구회」는 지난 3월20일(월)부터 오는 24일(금)까지 사회과학관 지하에서 탈춤강습회를 갖는다.

대학원 등록금 9%인상 합의

원우회, 학생회로 승격 발대식 30일 열려

대학원 원우회는 지난3월초 학교측과 회의를 갖고 등록금9%인상, 원우회를 학생회로 승격, 세미나실 및 연구공간 확보, 졸업준비금공개, 장학금인상등을 합의하였다.

지난해 대학측에서 독자적으로 등록금15%인상조짐을 보이자 대학원학생회는 물가인상등 과학적산출을 근거로하여 7%인상이 적당하다고 판단, 수차례의 회담을 가진 끝에 학교측과 9%인상으로 최종합의를본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원 원우회 학술부장 문원일군(중동지역학과 3학기)은 『이번 학교측과의 협상은 대학원생들에게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며 『등록금문제 뿐만아니라, 미약하나마 원생들의 바램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요구조항중 미해결된 석·박사 수험료와 각종 시험수수료에 관한 문제는 오는 4월초에 위원회를 구성 다시 학교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대학원학생회의 발대식은 3월30일(목)대학원 105호에서 열린다.

움직임

〈영화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2202호)

▲3월21일(화):오전10시 「거미의 신비」 오후2시 「무기여 잘있거라(A Farewell to Arms)」 오후 5시 「지지(Gigi)」

▲3월22일(수):오전10시 「거미의 신비」 오후2시 「지지(Gigi)」 오후5시 「무기여 잘있거라 (A Farewell to Arms)」

▲3월23일(목):오전10시 「거미의 신비」 오후2시 「무기여 잘있거라(A Farewell to Arms)」 오후5시「지지(Gigi)」

▲3월24일(금):오전10시「거미의 신비」 오후2시 「지지(Gigi)」 오후5시「무기여 잘있거라(A Farewell to Arms)」

▲3월27일(월):오전10시 「한국의 덫새」 오후2시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오후5시 「더플라이(The Fly)」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영사실(1412호)

▲3월21일(화):오후 1시 30분 「탑건(Top gun)」

▲3월22일(수):오후 1시 30분 「온 더 워터 프론트(On the water Front)」

▲3월23일(목):오후 1시 30분 「스플래쉬(Splash)」

▲3월24일(금):오후 1시 30분 「모던 타임스 (Modern Times)」

▲3월27일(월):오후 1시 30분 「별들의 전쟁(Star wars)」

〈동문회〉

◇서울캠퍼스

▲금옥고:3월21일(화) 대학원로비 오후5시 회비 5천원

▲경북예천고:3월21일(화) 분수대 오후 5시 회비 3천원

▲천안고:3월21일(화)상징탑 오후5시 회비 4천원

▲포천고:3월23일(목)시계탑 오후5시 회비 5천원

▲남원고:3월25일(토) 학생회관 휴게실 오후3시 회비 3천원

크로니클

신기록세우기

○…새해벽두부터 폭력혁명세력척결을 연두사로 내밸던 노가리가 민초탄압경쟁에서 대머리에게 질세라 강력한 의지를 표명, 민초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어.

시민의 발을 묶느니, 외부세력연계니하며 대대적인 언론공세로 정당한 지하철 노조활동을 매도하더니, 파업강행첫날 불도저를 앞세워 초강경진압으로 전국이래 최대의 연행자를 내 「연행자 신기록」을 달성한 것이 바로 그것.

학교다닐때부터 두 분의 순위경쟁이 심했다는데, 이번기회에 노가리마저 가까운 절간에 보내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인내력시험」이라도 치뤄야 한듯.

○…될성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모당총재의 해외순방 왜곡보도로 말썽을 빚은 ㅈ일보,떡잎부터형색이 수상해.

「수행의원 추태만발, 좌·우구별없는 손짓」떠벌이며 말할 자유만 앞세우는 ㅈ일보, 일제와 미국에 대를이어 손짓하는 자신도 못 추스리며, 관절뽑기 고문기술자를 모범민초지팡이로 상까지 주었던 바.

막강한 금력으로 언어의 폭력을 구사하는 곡필의 기수들에게 돈이 무서워 모두 피해간다면 애국훕산 모두 나서서 그 곡필의 역사를 요절내야 할판.

○…구래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민초들의 「양심선언」에 출처모를 테러가 횡행하고 있어..

사연인즉, 신년초 애국군인의 「명예선언」을 군부가 군기강 확립으로 바로 잡겠다고 예비역이등병으로 강등, 재대까지 시켜 놓고는 성이 안찼는지 「명예회복 테러」까지 저질러.

신중만 가고 물증은 없으나 지난 모일간지기자 테러사건의 범인은 상식적으로 분명 「한곳(處)」, 진짜 명예회복하려거든 테러사건 진상부터 밝혀야 할 사(事).

○…우익이의 죽음을 애도하던 모리배들이 똠들여 만들어낸 걸작품에 민초들 감탄연발.

내용인즉, 좌경확산에 경종을 울린다며 몸소 우익이를 따른 6공 모장관에 이어 노가리는 좌경혁명세태에 우려를 표하며 중간평가를「강행」에서 「무기한」으로 연기한것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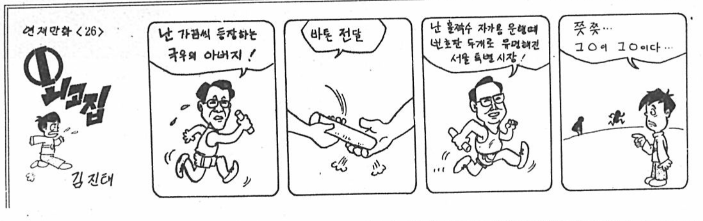
그렇게도 좌익이의 활동이 우려되시면 충신사표연극보다는 친히 사표내시는 과감한 행동이 더 효과적일듯.

○…공동의장제 첫시작의 큰 뜻품은 훕산대표발대식에 작은 것 탐하면 큰것을 잃는다더니 주체훕산의 모습은 찾을수 없어.

사연인즉, 돼지머리쟁취구습에 유혈사태(?)빚는 분열의 모습이나, 휴강공고믿고 봄나들이 즐기시는 훕산네들, 젯밥에만 의욕있거든 굳이 외대에 남을필요 없을듯.

혁신과 단결의 깃발아래 노조까지 동참한 이기회에 소수정예학생회 청산으로 중흥외대건설에 힘차게 동참해야할 터.

주체선언


연재만화 〈26〉
외고집
김진태
난 가끔씩 등장하는 국우의 아버지!
바톤 전달
난 홀짝수 자가용 운행며 넌호판 두개로 유명해진 서울 특별 시장!
쯧쯧…
그O에 그O이다…

제41기 수습기자 모집

주입된 이데올로기,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 오도된 역사속에서 우리는 자신도모르게 참진실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읍니다. 현실의 모순을 냉철한이성으로 비판할수 있고 누런 갱지에박힌 활자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안을수있는 「정론직필」의 파수꾼을 찾습니다.

△자 격=1학년 재학생
△모 집 부 문=일반기자 OO명
사진·컷기자 각O명
△제 출 서 류=응시원서(본사소정양식) 1통,
사진1매
△원서배부및 접수처=
서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12호)
△원서 접수 기간=3월2일~3월29일
△시 험 과 목
1차필기시험—국어 (한문·기사작성포함)·상식·논문
2차면접시험—1차합격자에 한함
△시 험 일 시=1차—3월29일 2차—3월30일 (장소 추후공고)

「훕산의 소리」 원고를 받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물건분실, 교직원과의 마찰, 학생간의 의견대립…。

외대라는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공동체속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점이나 미담(美談)을 게재하던 본보 「독자의 소리」를 올 신학기부터 「훕산의 소리」로 이름을 바꿔 복지뿐만 아니라 학보에 대한 평,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의사개진등 그 폭을 넓히기로 하였읍니다.

본교학생, 교직원, 교수, 동문등 외대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읍니다.

매수제한없이 되도록 짧은글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투고함이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투고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서울캠퍼스:학생회관, 도서관 휴게실, 사회과학관 인문과학관
▲용인 캠퍼스:교양학관, 어문학관, 문리학관, 학생회관, 사회과학관, 버스승차장

「공동연구」 원고모집

본보에서는 최근 학계및 교내외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제분야(사회과학·철학·역사학등)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상:본교학부생(대학원생 포함)
▲자격:반드시 2인이상 1개연구팀
▲주제:자유선택
▲문의및 제출처:본보 학생기자실
(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전화:965—7048(직통)

글을 모읍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훕산들. 다들 바쁜 모습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속에서 깨달아야 할 아픔들, 대학생활에서 얻게되는 무수한 고민들.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글거리 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을 바랍니다.

▲모으는 글:시, 수필(6~8매), 문예산책(연극·영화평6~8매), 꽁트(10~15매)
▲접수및 문의처: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외 대 학 보

예절과 자존의나라 태국 연수기

윤 진 욱

〈동문·태국어4〉

외국어 공부의 효율성은 풍부한 어휘력이나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비롯되지만, 해당국가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아닌가 싶다. 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중 하나는 과연 내가 학문 대상국인 태국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태국관련 서적을 뒤적이며 접한 태국의 역사나 강의시간 귀에 전달된 몇몇 단편적인 사실들은 나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 했으나, 정작 궁금증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장님 코끼리 더듬기식의 공부는 태국을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이었고, 언젠가부터 직접 현지에 뛰어들어 그 나라의 실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다. 태국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는 이점과 태국어과 교수님의 노력,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국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태국연수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12명의 태국어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월4일부터 47일간 실시된 태국연수는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를 폭넓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하면 쉽게 불교의 나라, 왕궁, 찌는듯한 더위, 킥복싱등을 연상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목격한 태국은 문화의 보고이자 공업국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라 전체가 천연의 문화유적지라는 배경에 힘입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성시를 이룬 관광지 태국. 경제면에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공업화 정책을 통해 신흥공업국을 위협하는 태풍의 눈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국에 첫발을 딛은 외국인들은 후각을 자극하는 매콤한 향내에 너무나도 이국적인 분위기에 젖는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태국 특유의 독특한 유적과 분위기가 부각되는 이나라는, 바로 이런 까닭인게 유난히 관광객이 많았다. 거리에서, 유적지에서, 쇼핑가에서 외국인의 모습은 곧잘 눈에 띄였고 우리 연수단 역시 자연스럽게 「관광객」으로 동화되기도 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하여 시내로 들어가면서 발견한 것은 도로변에 늘어선 빈민가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김포공항로는 물론 고속도로 주변의 집들을 단장시켜가면서까지 본래의 생활모습을 미화시키려고 안달인데 반해 태국의 빈민촌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수 있다는 그들의 배짱으로 해석되었다. 여행 속에서 항상 마주쳤던 태국인들의 미소와 친절, 그리고 이러한 배짱이 이 나라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듯 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지않은, 7백여년간 독립을 유지해온 국가이다.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이 빈번한 군사 쿠데타등으로 무척 불안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신격화된 존재로 인해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왕」에 대한 숭배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돌아다녔던 상점이나 관공서등지에는 어김없이 왕과 왕비의 사진들이 붙어있었고 영화관에서도 「왕의 찬가」와 왕의 모습을 담은 필름을 영화 상영전에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국판 「대한뉴스」와 「애국가」가 진행될 동안 불순한 언동이나 행위를 하게되면 대역죄로 극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태국의 왕은 실질적인 권력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일본등지의 왕과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일본의 통합상사에서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태국은 아세안 국가중에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라고 한다. 실제로 태국인들은 「정치」에 대한 우려나 관심이 우리나라에서처럼 강렬하지 못한 것도 같았고 이런 상황이 태국의 정치를 묵인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태국의 학생들은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정치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인식이 학창시절에는 학업에 열중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겠다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어쩌면, 아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안일한 생각, 잘못된 타성에 젖어있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 "왕의 절대적 권위와 전반적인 불교문화아래 살아가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민족"

이러한 의식수준과는 달리, 태국인들의 예의범절은 우리 민족 못지않게 훌륭했다. 언어에도 높임말이 있고 누굴 대하든 친절하고 따뜻했다. 우리가 태국 학생들과 강의를 함께 받을 때에도 그들의 예의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강의 시작과 종료, 혹 강의 시간에 늦었을때나 무언가를 발표할 때에는 항상 교수님께 합장으로 예의를 표시했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도 어느정도 배울점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사고 방식과 국민성은 불교의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온화하고 정직하다.

우리가 흔히 「킥복싱」이나 「매춘관광」을 떠올리면서 태국인들의 국민성을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태국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사회·문화를 좀더 깊이 인식하거나 그 곳에서 잠시 머물기라도 한다면 쉽게 수정될 것이다. 그들의 관습법중 하나가 젊은 남자들에게 얼마간의 「승려」생활을 강제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사찰들과 태국인의 생활문화 전반이 「사원」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태국인들의 국민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만큼 그들의 품성이 얼마나 수양되어 있을지는 자명한 것이며, 이것은 여행속에서 지루할 만큼 많이 느꼈던 사실이다.

연수중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그들의 여건이 부럽게 여겨진 적도 있었다. 여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꽤 높아 젊은 여성의 대다수는 물론 주부들까지도 직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한가지는 태국의 대학이 많이 발전해 있다는 점으로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도시와 같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에게 생활터전으로써 존재하고 있었다. 다양한 행사와 취미활동이 학내의 완벽한 시설안에서 치루어져 학생들의 활동에 많은 편의와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이번 해외연수에서 배우고 얻은 것은 글로 표현한 것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연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일상적인 생활회화는 쉽게 익숙해졌으나 일정한 주제를 놓고 태국학생들과 토의할 때는 어휘력과 표현력의 부족이 큰 문제였다. 어렵게 얻게되는 연수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출발전 세밀한 준비와 연수단 내의 꾸준한 회화연습이 필요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등에 대한 사전 지식도 갖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몇가지 미련속에서도 이번 연수는 「예절과 자존의 나라 태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평하고 싶다.

우리말의 쓰임새 (158) 오바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오바해서 나왔어? —일상대화 속에서〉

영어 「오바 (over)」는 차용어가 아니고 아직도 외국어이다. 따라서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지나다, 넘다」로 대치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한두 예를 더 보자. 「참 어그레시브한 사람이야」에서 「어그레시브(aggressive)」는 공격적, 적극적으로 사용하는게 좋다.

문화단신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예술마당 금강 주최

전시와 영상매체상영, 문화예술강좌를 중심으로한 민족문화예술을 가꾸고 키워나갈 복합문화예술공간 예술마당 「금강」의 개관기념 미술작품전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가 3월23일(목)부터 4월11일(화)까지 열린다.

갑오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이번 전시회는 서예, 회화, 조소, 도예등의 작품이 출품된다.

▲문의처:예술극장 금강 765—4747

제2기 국악강좌

—우리마당 주최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수용하고 민족문화를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마당 문화학교」에서 개설한 「국악강좌」 제2기가 3월22일(수)부터 4월14일(금)까지 「우리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대금 기본실기와 민요가락, 국악에 대한 교양강좌및 세미나등이 마련된다.

▲참가비:2만원(악기및 교재포함)

▲연락및 접수처:우리마당 문화학교 313—7169

아버지의 행군

—놀이패 한두레 주최

「제2회 민족극한마당」 출품작인 마당굿 「아버지의 행군」이 3월27일(월)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노동악법, 공권력 개입등 노동운동을 탄압해는 상황속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자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면서 역사의 주체로 발돋움하는 노동자의 역동적인 삶을 담고있다.

▲공연시간:매일 오후 4:30, 7:30

▲예매및 문의처:예술극장 「한마당」 363—7353

문예산책

30만톤의 공포

◇극단「민중」의 「아, 체르노빌!」을 보고

『당신이 폭발시킨 저 원자로는 앞으로 10만년동안 남아 있을거야. 시멘트의 관속에 묻힌 방사능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10만년이 걸릴테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념품치고는 정말 멋지잖아』

지난 86년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핵사고는 전인류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고, 방사능이라는 막연한 존재가 우리 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 사건당시 르뽀기자였던 「구바리에프」는 이 사고의 원인과 결과등을 가장 정확한 정보로 발표했으나, 그가 목격한 현장에서의 감정은 딱딱한 기사속에서는 해소할 수 없는 너무 강렬한 것이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연극」이라는 양식이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극단 「민중」이 공연한 「아, 체르노빌!」은 체르노빌 참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기록극으로서 종전 핵문제의 범주를 일상적·인간적 차원으로 넓히고 있다.

핵폭발로 인한 죽음앞에서 무력하기만한 인간의 모습 통해 그 폐해성을 실감

무대에는 열개의 병실이 흡사 격리된 닭장처럼 도열되어 있고, 모스크바 방사선안전대책연구소 실험부의 장치가 꾸며져있다. 극은 이 무대에 체르노빌의 피해자들이 이송되어 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환자들이 예정된 죽음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핵의 심각한 위험성을 철저히 폭로한다. 방사능앞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인간들, 계속되는 죽음을 지켜볼수밖에 없는 의사, 오열하는 처녀인턴.

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극의 원제 「석관」이 나타내는 원자로의 노심을 매몰하기위해 사용되는 30만톤의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의 부피만큼이나 엄청나게 다가오는 방사능의 공포이다.

작가는 검찰청에서 나온 조사관과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베스스멜트니」를 통해 체르노빌의 상징적 책임자인 발전소장을 통렬히 비판한다. 이 비판은 곧 소련내부의 정책에 대한 것으로 유추되며 책임자들의 책임회피, 실적위주의 평가에서 오는 문제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이 극은 핵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으며, 소련내부의 문제도 적절히 조명하고 있는 의미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의 전개가 지나치게 무겁고 지루해 관객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의 시대」는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도, 절망을 주기도 하고 있다. 핵은 의료사업으로부터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쓰이는 반면, 핵발전소는 미국에서만도 2만7천여건의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 오염 또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이 유보되고 있는 지금, 유독 한국만이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극을 보고 나오면서 느낀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한반도와 6천만 한민족의 운명이 언제 거대한 「석관」속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바로 내일 우리머리위에 방사능먼지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섬뜩함이었다.

김 선 희
〈서문·이태리어3〉

옛날 옛날에

이기연〈한국문화운동연구소 연구위원〉

〈1〉보통 호랑이 잡기

옛날옛날 아주 포악한 악질호랑이가 있었어. 황소고 돼지고 닭이고 가리지않고 어찌나 잡아먹었던지 그 피가 머리에 엉겨붙어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 역사 이래 최대로 밥통이 큰 악질호랑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어. 용감한 마을 청년들이 이놈을 잡으려고 싸웠지만 매번잡아먹히고, 요행히 살아 남아도 물리고 뜯겨 병신이 되었지.

헌데 이놈이 이번에는 마을 입구를 턱—하니 막아놓고는 지나다닐 때마다 통과세를 내라는 게야. 그리고는 덤비지 않는 놈은 잡아먹지 않겠다며, 그러니까 저는 「악질」이 아니고 「보통」호랑이라는 게야.

이 마을에는 이놈에게 부모를 다 잃고 사는, 쇠뿔이, 말뚝이, 오월이 삼남매가 있었어. 하루는 큰형 쇠뿔이가 그동안 농사지은 걸 팔러 산넘어 장에 갔다 돌아오니, 동생 말뚝이가 꺽—꺽 울고 있는 게야.

『형아, 흑—흑 내가 김매러 나간 사이, 호랑이놈이, 흑—흑 우리 오월이를, 흑—흑 잡아갔어—억억억—』

이제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귀여운 여동생 오월이를 잃은 두 오빠는, 가슴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어. 머리 맞대고 뜬눈으로 밤을 꼔 형제는, 날이 밝자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힘세고 용감한 큰형 쇠뿔이는 절굿공이를 가지고 산으로 가고, 발이 빠른 동생 말뚝이는 마을로 내려갔어. 원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산으로 간 쇠뿔이가 호랑이굴을 발견하고 살금살금 다가가보니, 악질호랑이는 없고 새끼만 두마리 있는데, 아 글쎄 오월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악질호랑이 그놈이 오월이 등을 발톱으로 긁어 피가 나게 해놓고 또 사냥을 나갔고, 그사이 새끼들이 달겨들어 그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오월이가 자지러지게 울 밖에.

쇠뿔이는 절굿공이로 새끼호랑이를 갈겨 단숨에 박살을 내고 말았지. 그리고는 한걸음에 밖으로 내달아 바윗덩이를 굴려 개구멍만큼만 남겨놓고는 굴 입구를 막아 버렸지. 쇠뿔이가 채 한숨도 돌리기 전에 굴 속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사냥에서 돌아온 호랑이놈이 엉덩이를 들이밀기 시작한 거야. 호랑이는 제 굴에 들어갈때, 지가 사는 데니까 뒤는 안심을 하고 앞은 적을 살피기 위해 엉덩이부터 디미는 습관이 있거덩.

『오냐, 네가 왔냐? 잘 왔다!』

쇠뿔이는 준비해 간 질긴 삼끈으로 호랑이의 꼬리를 굴속의 바위에다 친친 동여 매어버렸어. 그리고는 손을 똥구멍에다 쿡—집어넣어서 닥치는대로 움켜잡고 사정없이 잡아 당겼어. 그렇지만 명색이 산중왕인데 그놈의 내장이 그리 쉽게 빠지겠어. 그래, 서로 버티며 용을쓰고있는데 그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놈이 물치똥을 내어 깔긴 거야.

호랑이 똥은 어찌나 독한지 그걸 맞으면 풀이 다 타죽는다는 거 아냐. 쇠뿔이의 얼굴이 타기 시작했어. 한 손이라도 놓으면 똥을 닦을 수 있겠지만, 쇠뿔이는 죽어간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 밟혀, 도리어 온몸에 쌓인 분노를 달구질하며, 움켜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인정 사정없이 몰아쳐 당겨대었어. 그러자 호랑이는 미쳐 널뛰듯 날뛰기 시작했고 쇠뿔이의 몸은 거친 파도 위의 쪽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휘몰이로 몰아치는 꽹쇠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발빠른 말뚝이가 드디어 마을사람들을 몰고 올라오는 게야. 횃불을 들고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아, 호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횃불과 쇳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이거덩. (더구나 분노에 찬 건 딱 질색이야) 그러니 어찌되었겠어? 호랑이는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지. 아, 거기다 수없이 쏟아지는 몽둥이 찜질이라니!!! 원래 미친 호랑이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지 않아. 놈은 양쪽의 협공으로 창자를 한 발이나 빼어놓은 채 박살이 나고 말았어.

승리의 휘몰이로 몰아치던 꽹소리가 굿거리로, 연이어 한맺힌 육자배기 소리로 잦아들고, 사람들이 죽어간 형제들을 생각하며 터뜨리는 한바탕 대성통곡이 잦아들무렵, 쓰러졌던 쇠뿔이와 오월이가 일어났고, 다시 휘몰이로 갑아치기 시작했어. 그리하여 호랑이 고기로 주린 창자를 채우며, 온동네가 신바람나는 해방의 잔치판으로 들어갔다는 게야.

※본보문화부에서는 점차 왜곡되고 사장되어가는 우리의 옛 이야기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모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지속적 관심을 바랍니다.

좋은 책 몇권을 소개합니다

평양축전
"반제 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조국은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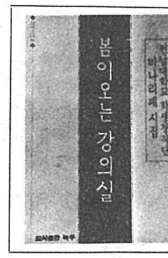
평양축전

—한겨레 사회연구소 지음

이책은 「반제 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평양학생축전의 성격, 역사등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세계청년학생들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축전의 의의와 축전을 계기로 남북한사이 고조되어 있는 통일운동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조명하고 있다.

〈죽산펴냄 2천5백원〉



봄이 오는 강의실

—비나리패 지음

전남대 학생창작집단 「비나리패」의 그동안의 작품집에서 선정한 시를 모아 엮은 이 책은 학생문예운동의 경험 축적을 발판으로 예술성·서정성·다양성등의 시적 완결성을 가진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나의 조국」 「틈부기 따라 울던 누이의 봄」등의 개인창작시와 「비나리 1987」 「수몰민의 노래」등의 공동창작시, 비나리패 활동보고서등이 있다.

〈녹두펴냄 2천원〉

조선철학사 개요

—최봉일 지음

이책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으로써 주체철학 사관에 기초한 우리나라 철학내용과 발전과정을 밝히고 있다.

고대 노예제사회로부터 삼국, 발해시대를 거쳐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기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중심철학의 발전역사와 그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한마당펴냄 3천5백원〉

정치경제학원론Ⅱ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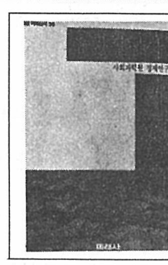
정치경제학원론Ⅱ

—편집부 엮음

사회주의 사회의 운동원리와 사회발전의 제성과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점검하고 있는 이 책은 사회주의 성립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적 소유의 제형태등을 해명하고 있다.

상품순환, 금융, 신용등 사회주의적 재생산과정의 운용원리 분석을 통해 공산주의로의 전화를 지배하는 경제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녹두펴냄 4천8백원〉



조선경제사 (상)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엮음

이책은 원시공산제사회로부터 노예소유제, 식민지반봉건사회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경제사를 사회정치적 변혁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를 규제하는 요인들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사회발전의 매단계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경제형태, 계급구성과 상호관계등을 통사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미래사펴냄 3천원〉

새날여는 청년학도

—전남대총학생회 학술부 엮음

현 대학의 파행적 구조와 잘못된 반공의식, 숭미사대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는 이 책은 청년학도의 올바른 「의식화」와 「우리」라는 주인된 생각을 일깨우고 있다.

식민지 군부통치하에서 자주교육의 필요성과 참교육을 위한 대학의 방향성 모색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남풍펴냄 1천5백원〉